

日本人 從軍記者의 韓國戰爭 報道와 그 性格

—韓日 文化交流의 原點

米津篤八(요네즈 토쿠야)

논문 초록

1951년 7월 한국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휴전회담이 시작된 시기에 일본인 종군 기자 일행이 한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한국이 독립된 후 처음으로 한반도 땅을 밟은 기자들이었다. 신문사, 통신사, 방송사 등 모두 16개 언론사 18명으로 구성된 일본인 기자단은 UN군 영관급 장교 신분 종군기자로 7월 11일 서울 김포비행장에 도착했다. 이후 1953년 7월 휴전협정 체결 때까지 2년간에 걸쳐 60여명의 일본인 기자가 파견되었다.

그들은 미8군으로부터 온갖 편의를 제공받으며 한국 국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취재활동을 했는데 기사를 일본에 보낼 때는 미리 미군 검열관의 엄중한 검열을 받아야 했다.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그들은 한국전쟁의 추이는 물론 한국의 사회상이나 민심, 대일감정 등을 취재하고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러한 취재 태도는 다른 나라에서 온 종군기자가 전황을 중심으로 보도한 것과는 달리 일본인 기자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일본어로 직접 한국인을 취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들의 기사에서는 그 시기 일본인이 갖고 있었던 한국의 이미지까지 읽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한일 관계를 생각하는 데 귀중한 선례를 보여준다.

일본인 기자들은 폐허가 된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쟁의 비참함과 식민지 조선의 흔적을 발견했다. 동시에 적극적으로 한국인을 만나 반공의식과 식민주의의 잔재가 얹힌 대일 감정, 일본 재무장에 대한 기대와 경계심이 뒤섞인 복잡한 여론,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 등을 자세하게 기사화하고 이를 일본 독자들에게 전해 주었다. 휴전회담 반대 여론이 고조됐을 때는 격렬한 시위 장면을 사진과 함께 일본 독자에게 전해 주었고 미 해군기지에서 일하는 일본인 기술자의 모습이나 한국인과 결혼하여 서울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 여성의 소리 등 일본과 한국 전쟁의 생생한 관계를 밝혀냈다.

그러나 일본인 종군기자의 활동은 처음부터 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파견 당시 그들은 미군의 강한 통제 아래 있었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사실을 보도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을 파괴한 주체가 미군의 공중폭격이었다는 사실조차 쓰지 못했다. 그리고 일본인 기자들은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을 경성(京城)이라 부르고 일본어로 취재하는 것을 당연시했다. 이러한 태도는 취재 대상이 된 한국인 지식인층의 친일적·반공적 성향과 결부됨으로써 한

국민들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기사들을 생산시켰다. 이 경향은 후에 한일 협정의 성격을 예상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반공적·친일적 보도 태도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본 중심의 새로운 수직적-차별적 냉전질서 구축과 지체된 한일 양국의 탈식민화가 낳은, 즉 새로운 한미일 구조가 낳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그러나 일본이 독립하고 일본 국내에서 미군의 검열이 폐지된 후에는 일본인 기자 나름의 독자성을 발휘했다. 휴전회담 반대 시위의 이면에 흐르는 한국인의 염전(厭戰)주의 또는 평화에 대한 염원을 적극적으로 일본 독자에게 전해주는 동시에 그때까지 주류를 이룬 반공주의적 한국전쟁관을 벗어나 ‘내전론’에 기초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멸적인 타격을 입은 일본인의 민족적 경험에 기초한 ‘평화주의’의 반영이기도 했다.

일본인 종군기자의 활동은 한일 양국에서 과거의 기록에 파묻혀 거의 잊혀져 있지만 그들이 남긴 보도 내용과 경험은 앞으로 건전하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과제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日本人 從軍記者의 韓國戰爭 報道와 그 性格

—韓日 文化交流의 原點

米津篤八(요네즈 토쿠야)

目 次

머리말	1
1. 日本人 從軍記者의 韓國 派遣	4
2. 日本人 記者들의 報道 內容	11
3. 日本人 從軍記者의 報道에 나타난 特色	23
맺음말	28
參考文獻	31

머리말

이른 아침, 며칠 동안 계속되던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다.

비를 보고 기자실에 레인코트를 두고 온 것을 알아차린 UP통신 서울특파원 제임스는 지프차를 몰고 미 대사관으로 향했다. 오전 8시를 조금 지나고 있었다.

대사관에 도착하고 차를 내린 그는 일요일인데도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첩보 장교의 모습을 발견했다.

제임스를 본 장교는 이렇게 말을 걸었다.

“큰일 났다. 제8사단을 제외하고 전면적으로 월경해 온 모양이다.”

제임스는 즉시 기자실로 뛰어들고 전화기를 잡았다.¹⁾

“38선 지역에서의 단편적인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일요일 아침 전경계선에서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²⁾

제임스가 9시 50분에 타전한 서울발 전문(電文)은 미 대사관이 본국에 타전한 보고보다도 빨랐다.³⁾ 제임스의 기사가 도쿄의 교도통신(共同通信) 외신부로 날아온

1) 《新聞協會報》1950년 7월 20일자 〈UP通信社ジャック・ジェームス特派員記〉

2)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 1990 《한국전쟁의 동서보도 비교》 한국언론연구원, 9쪽.

3) 같은 책, 9쪽.

것은 1950년 6월 25일 오전 10시 35분이었다. 한 기자가 한국의 통신사로 확인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우리도 UP의 전문을 보고 놀랐다”고만 할 뿐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⁴⁾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도 UP의 기사를 받자마자 곧바로 호외를 발행했다. 이는 일본에서 최초로 한국전쟁을 보도한 호외였다. 마이니치신문의 확인 전화를 받고 처음으로 전쟁 발발을 알아차린 경향신문도 마찬가지로 호외를 발행했다.⁵⁾

전수를 친 마이니치신문에 질세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서울의 외교부와 국방부, 서울시청, 각 언론기관에 국제전화를 신청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서울신문사 오종식 논설주필과 전화가 연결되었다. 그 인터뷰는 〈동란의 현지에 묻다/京城-본사 국제전화/전선에서 반격 전개/한국, 최후의 승리를 믿다〉란 제목으로 지면을 장식했다.⁶⁾ 아사히신문은 그 후도 계속 한국 신문사를 통해 사태를 파악했고, 27일에는 〈경성 함락 직전/한국 수도 대전으로 이전〉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인민군의 진격을 지도와 함께 게재했다.⁷⁾ 한국의 신문이 “군 당국의 검열을 받아 전황을 왜곡 보도한” 데 비해 일본의 신문이 “오히려 훨씬 사실에 가까운 보도를 했다”는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⁸⁾

한편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赤旗)》는 6월 26일,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의 지령에 의해 30일간의 발행 정지 처분을 받았다. 논설에서 남한의 북침(北侵)을 주장한 점이 문제시된 것이었다. 27일자 아사히신문 조간은 〈《아카하타》를 처단/“조선 문제에서 허위 보도”〉라는 제목으로 GHQ의 특별발표를 보도했지만 무엇이 “허위”였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⁹⁾

이상에서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일본 언론의 보도 흐름을 시간의 추이에 따라 살펴 보았다. 당시 일본은 미군의 점령 하에 있었고, 따라서 일본 언론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특파원을 파견할 수 없었다. 대신 일본 언론은 미국 언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한국 신문사나 군에 전화를 걸어 사실과 정황을 확인하려고 시도했다. 일본 언론의 그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했고, 일본 독자들에게 비교적 정확한 전황을 알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 함락까지의 3일간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에게 현장에 기자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은 틀림없이 답답했을 것이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전장인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며, UN군에 기지와 무기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쟁에 협력했다. 더구나 한반도와 현해탄을 사이에 둔 규슈(九州) 북부에는 미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이타즈케(板付) 공군 기지도 있었다. 6월 29일 밤에는 “국적 불명 비행기가 접근 중”이란 미군 정보를 받아 규슈 북부에 경계정보가

4) 共同通信社社史刊行委員会編, 1996 《共同通信社50年史》共同通信社, 120쪽.

5) 《한국전쟁의 동서보도 비교》, 10, 11쪽.

6) 《夕刊朝日》1950년 6월 25일자.

7) 《朝日新聞》1950년 6월 27일자.

8) 《한국전쟁의 동서보도 비교》14쪽.

9) 《朝日新聞》1950년 6월 27일자.

발령되었고, 7월 11일에는 고쿠라(小倉, 현 기타큐슈시北九州市)에서 160여 명의 미군 흑인병사들이 출동을 기피해 탈영한 뒤 진압부대와 시가전을 벌이는 미증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에 의한 엄중한 보도 통제로 인해 이러한 사건들은 1단의 작은 기사로 보도되었을 뿐이다.¹⁰⁾

이렇듯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란은 일본인들에게도 중대한 관심사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나 미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는 일방적인 것이고 이론(異論)을 보도하는 언론사는 GHQ의 “처단”을 받을 터였다.

전선이 교착 상태로 접어든 1951년 7월 11일, 즉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린 다음 날이 돼서야 일본인 기자들은 한국의 현장을 직접 취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날 일본의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등 모두 16개사에서 선발된 18명이 도쿄 하네다 비행장을 출발하여 서울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일본 패전 후 최초의 한국 특파원, UN군 소속 종군기자들이었다. 이호영은 “일본인 기자가 한국전선에 파견되었다는 사실은 전후 최초의 일이라는 점에서 의의”¹¹⁾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그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한일양국에서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일본의 주요 언론이 한국전쟁의 휴전 협정 체결까지 합계 60명 이상의 기사를 파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거의 잊혀지고 있는 듯하다. 종군기자들의 활동을 전해주는 책은 거의 없고 각 언론사 사사(社史)에도 단편적인 기술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한국전쟁은 현대 한일 관계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다. 특히 일본인 종군기자 파견은 독립국가가 된 ‘대한민국’을 일본인이 직접 눈으로 보고 보도한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활동이나 보도 내용에 대한 연구는 일본에서도 거의 없고 이호영¹²⁾과 쓰치야 레이코(土屋礼子)¹³⁾가 논문 속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이다. 이호영의 글은 일본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게재된 한국전쟁 관련 기사, 논설, 사진 등 방대한 자료를 수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시기 일본 미디어와 지식인들의 한국(전쟁)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정리한 노작이다. 그는 일본인 종군기자 파견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활동에 대해서도 신문업계지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소개했지만, 그들이 쓴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천착하지는 않았다. 한편 쓰치야의 글은 미국의 대일심리전이라는 관점에서 미군 자료를 활용하여 일본 언론의 한국전쟁 보도를 연구했다. 쓰치야는 일본 종군기자의 보도내용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그들의 견문은 패전 후 일본과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대화의

10) 朝日新聞社百年史編修委員会編, 1995 《朝日新聞社史 昭和戦後編》朝日新聞社, 117~118쪽. 《体験者に聞く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 1998, 日本新聞協会研究所, 4쪽. 흑인병 탈영 사건은 8년후인 1958년에 고쿠라 출신의 작가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가 소설화했다. 이 소설에서 마쓰모토는 한국전쟁에 투입된 흑인병사들의 높은 사망률이 사건의 배경에 있었다고 보았다(《黒地の絵》光文社, 1958). 한편 《体験者に聞く…》에서는 사건의 동기를 “미군 보병 25사단 24연대, 장교 이외는 모두 흑인으로 구성된 부대로 일본에 진주하고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UN군에 편입되고 한국전선에 투입되는 것을 싫어해 탈영했다”라고 설명했다.

11) 李虎栄, 1998 《日本のメディアにおける朝鮮戦争の報道に関する研究》上智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新聞学博士論文, 62쪽.

12) 李虎栄, 앞의 논문.

13) 土屋礼子 2013 〈対日心理戦としての朝鮮戦争報道〉《Intelligence》vol.12, 早稲田大学20世紀メディア研究所インテリジェンス編集委員会.

첫 걸음”이었다고 결론지었지만 아쉽게도 그들의 보도내용에 대한 분석이 모자란 감이 없지 않다.

이에 본고는 쓰치야와 이호영이 제시한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기존 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일본인 종군기자의 기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전쟁 당시 일본의 한국 보도의 특징과 그 현대적 의의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거기서 엿볼 수 있는 당대 한국인, 한국사회의 특색을 살펴본다.

종군기자들이 쓴 기사는 비록 미군의 검열이라는 제약 아래서 쓰인 것이지만, 한국전쟁기의 한국 사회를 외부자의 시선에서 관찰한 귀중한 증언이기도 하다.

본고는 특히 휴전회담 개시 이후 휴전협정 체결까지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종군기자가 쓴 기사 174 편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기사 일람은 참고자료 참조).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그 시기 일본에서 발행부수가 가장 많았고 따라서 사회적 영향력 역시 컸기 때문이다. 물론 교도통신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지만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본고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¹⁴⁾ 그리고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와 한국의 보도를 비교하기 위해 같은 시기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일부 참조했다. 동일 주제를 다룬 한국의 신문과 대조함으로써 당대 일본과 한국의 한국전쟁 보도의 특징과 그 시기 양국 언론이 안고 있던 문제점과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일본인 종군기자의 활동 실태와 한국 파견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新聞協會報》, 〈座談會 朝鮮戰線に従軍して〉(《改造》1951년9月号 改造社, 1951), 染川洋二郎〈廢墟の朝鮮をゆく〉(《地上》5권 10호, 1951), 《昭和の戦争 ジャーナリストの証言10 朝鮮戦争・ベトナム戦争》(講談社, 1985), 《体験者に聞く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日本新聞協會研究所, 1998), 에고시 도시오(江越壽雄)씨 인터뷰(2014년 11월 실시)등을 참고했다.

1. 日本人 從軍記者의 韓國 派遣

1951년 7월 휴전회담 개최 결정과 함께 일본인 종군기자의 한국 파견이 허가된 당시 신문업계지인 《新聞協會報》는 일본인 기자 파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일본인 기자의 한국 파견을 허가/16사 18명이 출발〉

총사령부 공보처[Public Information Office, PIO]와 민간정보교육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CIE] 및 UN군 사령부가 한국 휴전회담을

14) 1951년 6월의 발행 부수는 마이니치신문 425만부, 아사히신문 421만부로 각각 일본에서 1, 2위를 차지했다(日本新聞協會편, 1951 《日本新聞年鑑 昭和27年版》, 247~258쪽). 교도통신은 이차대전 후 해산한 국책회사 도메이(同盟)통신사의 보도부문을 인수한 기업이며 후술하지만 GHQ도 한국에 종군 기자를 파견할 때 다른 언론사에게는 기자를 한 명씩 할당했는데 교도통신만 세 명의 기자 파견을 허용했다. 이것은 교도통신의 영향력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교도통신이 제공한 기사는 주로 지방신문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자료 수집 상 어려움이 있다.

취재하기 위해 일본인 기자 현지 파견을 허가함에 따라 기자단 18명은 11일 오후 2시 35분 비행기를 타고 京城[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2차대전 후 일본인 기자가 방한하는 것은 그들이 처음인데, 일행의 활동은 총사령부 신문과가 지도하며 모두 UN중군 특파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¹⁵⁾

선정된 언론사는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닛케이, 산케이, 지지신보 등 전국지 6개사와 홋카이도, 도쿄, 주부닛본, 오사카, 니시니혼 등 유력 지방지 5개, 교도통신, 지지통신, 아크메션통신(후에 UPI통신 사진부로 통합) 등 통신사 3개, 그리고 방송사로 NHK, 영문지 닛본타임스 등 모두 16개사였다. 교도통신은 다른 회사와는 달리 3명의 기자를 파견했는데 이는 통신사를 우대하는 미국의 언론 관습 때문이었다. 제1진으로 파견된 언론사와 기자 성명은 다음과 같다.

산케이신문=安藤利男, 아크메션통신=江越壽雄, 교도통신=藤田一雄、渡辺忠恕、源關正壽, 마이니치신문=今村得之, 도쿄신문=笠井眞男, 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신문=木原健男, 요미우리신문=小平利勝, 닛본타임스=染川洋二郎, 지지(時事)신보=内藤男, 지지(時事)통신=千田岡南男, 니시니혼(西日本)신문=小屋修一, 주부닛본(中部日本)신문=杉浦英男, 아사히신문=鈴川勇, NHK=中村重尙, 오사카(大阪)신문=吉富正甫, 홋카이도(北海道)신문=石坂欣二.¹⁶⁾

기자 선정은 각사의 재량에 맡겼는데 미군의 사전 검열을 의식하여 영어로 기사 집필이 가능한 인물이어야 했다. 그래서 외국특파원 경험자나 일본계 2세 기자 등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⁷⁾ 예를 들어 아사히신문의 스즈카와(鈴川)는 사내에서 으뜸가는 영어통으로 일본 패전후 히가시쿠니노미야(東久邇宮) 총리가 맥아더와 면담할 때 통역을 맡았다.¹⁸⁾ 또 마이니치의 이마무라(今村)와 닛본타임스의 소메카와(染川)는 일본인 이민의 아들로 미국에서 태어나 이차대전 전에 조국 일본을 방문해서 교육을 받은 일본계 2세들이었다.¹⁹⁾

당시 아크메션통신 카메라맨으로 제1진 중군기자가 된 예고시(江越)의 증언에 따르면 선발된 기자들은 CIE 신문과장 임보텐의 훈시를 받고 극동군 총사령부가 발행한 〈인터내셔널 트래블 오더(해외 취재 허가증)〉를 지급 받았다.²⁰⁾ 트래블 오더는 “리지웨이 장군의 명으로 서울의 제8군으로 향하는 것을 허가한다”라는 내용으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미군의 비행기나 차량, 숙박시설 등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역으로 트래블 오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예고시는 그 후

15) 《新聞協會報》1951년 7월 12일자.

16) 《新聞協會報》1951년 7월 12일자.

17) 《体験者に聞く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10~11쪽.

18) 三好徹, 1988 《評伝 緒方竹虎》岩波書店, 1988, 195쪽.

19) 今村得之, 1929 〈母國の所感〉《母國見学記念誌》布哇仏教青年会, 69쪽. 桑井輝子, 2009 〈友情と友好を結んで — 敝之館からラヂオプレスへ〉《JICA横浜海外移住資料館研究紀4》3쪽.

20) 江越壽雄(예고시 도시오)씨 인터뷰, 2014년 11월 12일 실시.

미군 장교의 인솔 하에 일본 외무성을 방문했다. 그의 증언을 좀 더 들어보자. “외무성에서 그 장교가 명령하는 거예요. 연합군 사령관의 명령으로 이 18명분의 여권을 30분 이내에 작성하라, 이런 식으로요.” 그 후 그들은 미군 병참부 매점에 가서 미군 장교용 군복을 맞추었다. 대금은 미화로 지불해야 했는데, 외화가 귀중한 시대여서 개인적으로 환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군의 명령으로 대장성(재무부)에서 한 명당 500불씩 환전했다. UN군에 등록된 종군기자는 영관급 대우를 받는 것이 원칙이었고 일본인 기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패전국의 기자들이 갑자기 전승국(UN군) ‘장교’가 된 셈이다.²¹⁾

그들은 11일 오후, 도쿄 하네다 비행장에서 C54 미군 특별수송기를 타고 4시간 만에 서울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다. 그들의 숙소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미쿠니(三國) 아파트였다. 미쿠니 아파트는 1935년 미쿠니상회가 건설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아파트중 하나이며, 전쟁 후에 내자(內資) 아파트, 내자 호텔로 사용되었다. 미국은 접수한 미쿠니 아파트를 특파원 숙소(Press Billet)로 만들고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특파원들의 숙박과 식사, 통신 등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도자문과(PAD, Press Advisory Division)를 설치하여 검열 작업도 했다.²²⁾ 한국에 온 기자들은 먼저 이 특파원 숙소에서 미8군 공보과(Information Section)에 출두하고 부임 보고를 하며 특파원에 대한 주의사항이 나열된 팸플릿인 〈Information for Press Correspondents〉을 교부받았다.²³⁾ 거기에는 UN군 공보처(PIO)의 위치, 특파원에 대한 기본정책에서부터 식당의 영업시간과 가격, 교통·통신 등 편의 사항, 검열의 요점까지 특파원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적혀 있었다. 이 팸플릿에 따르면, 특파원은 식사비 40센트를 개인부담 하는 것 이외에 교통비, 숙박비, 통신비 등은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다. 이 팸플릿은 특파원 정책과 검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 전쟁 특파원에 대한 기본 정책

주한미8군사령부는 특파원의 업무를 쉽고 효과적으로 또 가능한 한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많은 홍보 기관을 설치했다. 한국 방문 허가를 받은 모든 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서비스, 업무 지원, 그들의 이익을 위한 규칙 등을 기재한다. 방한 허가는 도쿄 소재 라디오 도쿄 빌딩[방송회관]에 있는 극동군 총사령부의 몫이다. 식사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는 특파원이나 그의 소속사에 대해 무료로 공급된다.

7) 검열-극비 정보

a. 극비 정보는 보도 불가하되 정황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 신속하게 특파

21) 같은 인터뷰.

22) 《体験者に聞く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12쪽.

23) EUSAK(주한 미8군) 〈Information for Press Correspondents〉 江越壽雄 씨 제공, 日本新聞博物館 소장 자료.

원에게 제공한다.

b. 특히 극비 정보와 관련된 보안 규칙을 엄수하는 것은 종군기자의 중요한 의무이다.

c. 공식·비공식을 막론하고 어떤 정보원에 의거한 모든 기사는 극동군 총사령부 PIO의 PAD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아야 한다.

d. 특파원은 전화로 보안정보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e. 한국 국외 지역으로 전화할 때는 PAD의 제한을 받는다.²⁴⁾

이 자료가 보여주듯 종군기자들은 취재에 관한 온갖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이동, 통신, 기사 송고 등 그들의 모든 행동을 통제받았다. 전선으로 인해 북쪽이 막힌 남한 지역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고 외부와의 교통수단은 도쿄발(發) 군용비행기 밖에 없었다. 특파원들은 도쿄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UN군 사령부에 등록해야 했고, 서울에서 미8군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이동·통신 수단은 아예 없었다. 한편 미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쓴 기자를 통제하고 다시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기사는 사전검열로 일본에 보내기 전에 전체 내용이 영어로 번역돼야 했고, 서울의 특파원 숙소에는 UN군 사령부 PAD 검열관에게 제출하여 ‘승인(Approved)’ 도장을 받아야만 했다. 기사의 영어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병사가 “Censor calling!” 이라고 외쳤는데, 그럴 경우 기자는 검열관에게 설명하러 가야 했다.²⁵⁾ 사진의 경우, 특파원 숙소 내에 현상 시설이 부재하여 하루에 2번 군용 제트기와 지프차로 도쿄의 방송회관까지 보내 거기서 현상하고 총사령부 검열관의 검열을 받았다.²⁶⁾

에고시의 증언에 따르면, 검열 때 구두로만 주의를 받았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서는 없었다. 하지만 PAD의 내부 자료를 보면 검열 절차나 검열 기준에 대해 꽤나 자세한 지침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검열 기준은 20개 분야 88 항목에 이른다. 특히 주목할 만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세균전이나 전염병에 관한 기사는 G2의 심사를 받거나 GHQ PIO가 발표하기 전에 보도해서는 안 된다.
- “에이전트”라는 단어는 사용금지. 또 “민간의 정보원” 및 월남민, 전쟁 포로의 발언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사진 촬영을 꺼리는 느낌이 드러나는 전쟁포로 사진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 제네바 협정 위반을 암시할 UN군 및 생존하는 포로 또는 포로의 시체가 찍힌 사진은 불허.
- 석방된 아군 측 전쟁 포로는 정보원(情報源)으로 공표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

24) 위와 같은 자료, 4쪽.

25) 《体験者に聞く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8쪽.

26) 江越壽雄(에고시 도시오)씨 인터뷰.

· 심리전 계획에 관한 모든 정보는 G2 심리전과를 통해서 발표된다. PIO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일치하거나 거기서 인용한 것 이외는 어떤 기사도 허가되지 않는다.(우리 측 계획과 기술을 적들이 모르면 모를수록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대항조치는 적어진다.)²⁷⁾

이 검열 기준은 “세균전”, “월남민”, “전쟁 포로”, “심리전” 등 한국전쟁에서 민감한 말들을 나열했으며, 여기서 미군 측이 이 전쟁의 첩보전·심리전적 성격을 감추려고 노력한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번잡한 검열 기준에 기초한 미군의 검열을 일본 기자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예고시는 미군 검열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검열관은 영관급이잖아요, 중령이 많았는데, 그들은 우리 기자 측도 영관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서울에서 검열하는 검열관은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요. 숙소도 같고 식당도 같고 기자들 중에도 원래 군인을 하다가 기자가 된 사람도 있어서 친구 같은 사이라고 할까. 2차대전 시기 일본의 검열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 군대는 기자를 영관 취급조차 하지 않았고요.²⁸⁾

일본해군 보도반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도쿄신문 가사이(笠井) 기자 역시 미군의 언론 정책을 “프리 프레스(Free Press)라는 개념이 생활 속에 정착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리지웨이나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카이즈 비치 가자가 맥아더를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풍토에 감탄했다.²⁹⁾ 이러한 미군의 언론 정책에 대한 시각은 중군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본 식자층의 공통적인 요소이기도 했다. “점령 아래 검열에서는 기사를 문제 삼아 집필자나 발행자가 그것만을 이유로 기소, 투옥을 당한 일이 없고 그런 점에서 일본의 단속 당국(중략)과는 달랐다.”³⁰⁾ 라고 하거나, “2차대전 당시의 검열과 비교하면 여전히 느슨한 것이었다는 것이 출판인의 한결같은 소리”³¹⁾라는 지적, “점령 아래 언론 탄압도 가차 없는 것이었지만 아직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주체와 조직은 남아 있었다. 2차대전 중의 언론 탄압 아래서는 이것마저 남아 있지 않았으니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³²⁾는 등 언론인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일본인의 뇌리에 ‘자유’의 나라 미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한 CIE의 언론 전략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예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승만 정부의 입장에서 비자도 없이 UN군 기자 신분으로 한국 국내를 돌아다니는 일본인 기자는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손님이었다. 당시 입국한 일본인 기자 중에는 무허가로 부산에 내려가 정부 요인을 취재하다가 한국정부로부터 사중

27) 土屋礼子, 앞의 논문, 72~78쪽. 원 자료는 RG554 E#A1-141

28) 江越壽雄(예고시 도시오)씨 인터뷰.

29) 《体験者に聞く 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30쪽.

30) 《朝日新聞社史 昭和戦後編》28쪽.

31) 朝日新聞社.東京本社.出版局, 1969 《朝日新聞出版局史》朝日新聞社, 216쪽.

32) 松浦總三, 1974 《増補決定版 占領下の言論弾圧》現代ジャーナリズム出版会, 131쪽.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³³⁾ 평화선을 침범하고 나포된 어민을 취재하여 한국 당국의 항의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³⁴⁾ 이러한 직접적인 통제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승만 정부가 일본 기자들에게 상당한 경계심 내지 불쾌감을 가지고 감시를 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교도통신 다케우치(竹内)가 합동통신 임원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 내무부에는 일본인 기자단에 관한 자료가 많이 있었다. 일본 기자들이 친해진 한국인과 밖에서 만나면 꼭 치안국 외사특고과(外事特高課)의 사복형사가 미행했다. 한번은 다케우치가 그 사복형사를 미군 전용 바(bar)로 불러 물어보았더니, 그는 일제강점기에도 같은 일을 했었다고 고백했다.³⁵⁾ 또 서울의 특파원 숙소에는 방마다 여성이 한명씩 시중을 들었는데 그들은 일본 여학교나 여전을 나와 일본말에 능통한 인텔리였으며 잡일을 도맡았을 뿐만 아니라 기자에게 한국 신문을 읽어주고 한국 역사나 습관에 대해 질문하면 또렷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일본 기자들이 추측한 바에 따르면, 그 여성들은 특파원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한국 공안당국이 파견한 프락치였다.³⁶⁾

패전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UN군과 동등한 특권이 부여된 일본 종군기자의 존재를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여긴 사람은 이승만만이 아니었다. 도쿄신문 가사이 기자는 “당시 미국 정부나 군 요직은 한반도 자체보다 오히려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되니까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곤 했다. 따라서 일본인 기자에 대한 좋은 대우를 포함해서 한국인 기자들 사이에는 상당히 심각한 욕구불만이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³⁷⁾ 당시 한국인 기자는 외국 언론사의 통신원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UN 종군기자 자격을 얻지 못했다. 그것은 자국 안에 있으면서도 외국 기자보다 취재 활동에 훨씬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조선일보 최병우 기자는 휴전협정 조인식을 보도한 기사에서 털어놓았다.

(板門店 調印式場에서 崔秉宇 特派員發) 白晝夢과 같은 11分間の 休戰協定調印式은 모든 것이 象徴的이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悲劇的이며 象徴的이었다. 學敎講堂보다도 넓은 調印式場에 割當된 韓國人 記者席은 둘뿐이었다. 〈유엔〉側 記者團만 하여도 約百名이 되고 參戰하지 않는 日本人 記者席도 十名을 넘는데 休戰會談에 韓國을 公的으로 代表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다.³⁸⁾

그런데 이 시기 미군이 일본인 특파원의 파견을 허용한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 이유를 직접 언급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아 세 가지 배경을 추측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군 내부의 언론 정책 변화다. 1950년 12월 미8군 사령관에 취임한 리지웨이는 브리핑에서 전황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

33) 李虎榮, 앞의 논문, 51쪽.

34) 《体験者に聞く 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22~23쪽.

35) 같은 책, 19쪽.

36) 같은 책, 18쪽.

37) 같은 책, 22쪽.

38) 《조선일보》1953년 7월 29일자.

여 기자들의 의심을 푸는 동시에 검열에 대한 협력을 구했다.³⁹⁾ 그리고 해임된 맥아더를 따라 연합군 총사령관에 취임하자 맥아더가 도입한 미8군과 총사령부의 이중검열 제도를 풀어주었고⁴⁰⁾ 휴전회담 개최 시에는 기자단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담장에 가까운 문산에 취재기지와 숙박시설을 겸한 ‘프레스 트레인(Press Train, 신문열차)’을 설치하고 공산측이 특파원의 회담장 출입에 난색을 보이자 7월 12일에 회담을 중단하기도 했다.⁴¹⁾ 권위적이고 신비성에 감싸인 맥아더와 달리 투명성과 친화성을 추구한 리지웨이의 언론 정책이 일본인 중군기자 파견을 허용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대일 강화회의가 가까워지고 일본 점령 종결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 여론은 미소를 포함한 모든 연합국을 상대로 전쟁을 종결하여야 한다는 ‘전면강화’론과 미국 등 자유권만을 상대로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단독강화’론의 두 흐름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아사히신문이나 잡지 《세카이(世界)》를 비롯한 비교적 진보적인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전면강화를 통한 일본의 중립화를 주장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950년 6월 1일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를 독립된 대등한 나라로 인정해 주는 나라와 하루 빨리 강화를 맺어”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단독강화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냈다.⁴²⁾ 냉전 체제 아래 일본을 자기 진영에 편입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미국으로서는 점령 종결 후 강압적 통제 없이 일본 언론을 친미·반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만 했다. 한편 6년이라는 오랜 점령에 지친 일본인들 사이에는 점차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다. 1951년 초 점령 종결을 의식해서 미국무부는 〈기밀: 미국의 대일 정보·교육 프로그램(USIE) : 강화 후 또는 강화 전 출발점〉이라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요점은 트루먼 대통령이 제창한 세계적인 정보활동 “진실 캠페인(Campaign of Truth)”을 일본에서도 실천하고 독립 후의 일본을 친미적인 반공의 방파제로 만드는 데에 있었다.⁴³⁾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일본 특파원을 UN군 중군기자의 일원으로 삼아 ‘국제무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일본 언론에게 미국식 가치관을 심어주는 동시에 독자들에게 일본이 자유주의 진영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 가사이는 “기자를 파견하는 것에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

39) Steven Casey, 2008 《Selling the Korean War—Propaganda, Politics, and Public Opinion 1950-1953》 Oxford University Press, 166~167쪽.

40) 같은 책, 299~300쪽. 다만 UN사령부의 PAD 검열관은 주한 미8군 사령부 안에 두었다. 이것은 검열관이 전선의 정보를 정확하게 검열에 반영하고 두 사령부 간에 갈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41) 리지웨이의 회담 중지 조치는 반드시 기자들의 호평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I.F.스톤은 미국 기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을 인용하면서 “특파원 본인들은 이러한 장군이나 제독들의 갑작스러운 배려를 신랄한 태도를 보인 것 같다. 장군들은 이제까지 언론에 대해 함부로 관대한 태도를 보여준 일은 없었으며 또 뒤이은 몇 주간도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비아냥거렸다(I.F.Stone, 1952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Monthly Review Press, 284~285쪽). 한편 케이스도 7월 후반에는 회담 의제의 세부 사항을 두고 양쪽 진영의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기자들이 불만스러웠던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그 이후 군은 언론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었다고 지적했다.(Steven Casey, 앞의 책, 273쪽)

42) 《朝日新聞社史 昭和戦後編》 115쪽.

43) 土屋由香, 2009 《親米日本の構築——アメリカの対日情報・教育政策と日本占領》 明石書店, 229~235쪽.

가 있었다.”고 술회하면서 점령 아래 기자로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것도 언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정책적 배려 때문이었다고 보았다.⁴⁴⁾

셋째는 한일 회담과의 관련이다. 미국은 극동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 간의 수교를 도모했고 1951년 10월에는 GHQ의 주선으로 한일 예비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일본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보였으며, 한일 양국간에는 일본 재무장 문제, 식민지 배상문제, 독도문제 등 심각한 대립점이 산적해 있었다. 한편 한국 전쟁 시기 사회 혼란과 엄격한 언론 통제로 인해 언론이 막힌 한국사회에서는 일본의 매체가 귀중한 정보원으로 기능했다. 미군은 일본 매체를 심리전의 도구로 삼았다. 서울 함락 다음 날인 1950년 6월 29일 CIE는 NHK 방송시설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한국어 특별방송을 개시했다.⁴⁵⁾ 또 CIE는 NHK에 대해 일본어 방송을 제작할 때도 한국인 청취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을 지시했다.⁴⁶⁾ 아사히신문 역시 서울 함락 직후 GHQ의 요청으로 매일 2만부씩 한국으로 공수되었다.⁴⁷⁾ 휴전 회담 개최 후에도 한국인의 일본 매체에 대한 수요는 높았고, 부산의 시장에서는 일본 잡지가 정가의 백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되었다.⁴⁸⁾ 당시 한국에서 라디오를 가졌거나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도층이 많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전쟁 시 일본 매체의 이러한 영향을 고려할 때, 미군이 일본 특파원에게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매체 역할을 기대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일본인 기자가 쓴 기사 중에는 강화회의나 일본 재무장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이 꽤나 많이 나오는 편으로 휴전회담의 추이 못지않게 큰 비중을 점했다.

2. 日本人 記者들의 報道 内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1년 7월의 휴전회담 개최는 간접적인 정보에만 의지해 왔던 일본의 한국전쟁 보도를 크게 바꾼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후 한국의 상황을 직접 취재한 일본인 중군기자들의 글이 일본 신문에 게재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일본인이 ‘식민지 조선’이 아닌 독립국가로서의 한국을 ‘재발견’할 첫걸음이자 한국전쟁에 대한 일본 나름의 시각을 정립할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다. 그러면 일본인 기자들의 눈에 비친 ‘외국’으로서의 한국,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은 한국전쟁을 어떻게 그렸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휴전회담 개시부터 휴전협정 체결까지 일본 신문에 게재된 일본인 중군기자들이 쓴 기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도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분석 대상은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일본인 중

44) 《体験者に聞く 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19쪽.

45) 日本放送協会, 1972 《放送五十年史》日本放送出版協会, 300쪽.

46) 土屋礼子, 앞의 논문, 63~64쪽.

47) 《体験者に聞く 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44~45쪽.

48) 《朝日新聞》1952년 8월 26일자.

군기자의 현지 보도 중에서 단순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제외하고 기자들의 주관이 비교적 잘 드러난 174 편 중 특히 일본과 관련이 깊은 기사들을 골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분석했다.

- ㄱ) 전쟁 피해의 실정과 부흥 양상
- ㄴ) 한국인의 대일 감정, 대일 이미지
- ㄷ) 휴전 협정에 대한 한국 여론, 한국인의 전쟁관
- ㄹ) 한국전쟁과 일본인과의 관계, 일본의 전쟁개입

우선 위와 같은 분류별로 일본 기자들의 보도 내용을 살펴본 뒤 기사들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함으로써 일본인 기자들의 한국관, 한국전쟁관을 부각시켰다. 그들의 시각은 당시 일본인의 전형적인 한국 이미지이기도 할 것이다. 동시에 기사 속에서 드러나는 미군의 심리전과 검열의 영향을 살피고 한국 언론 보도와 비교함으로써 당시 양국 언론의 특성과 한계를 부각시키고자 했다.

ㄱ) 전쟁 피해의 실정과 부흥 양상

1951년 7월 11일 16개 언론사에서 선발된 일본인 종군기자 18명을 태우고 도쿄 하네다비행장에서 날아오른 미군 수송기는 저녁 7시 20분 서울 김포비행장에 도착했다. 시내로 향하는 기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렬하게 와 닿은 것은 무엇보다 파괴된 서울의 모습이였다. 아사히신문 스즈카와(鈴川) 특파원의 기사 〈전화(戰火)의 흔적·게이조(京城, 경성)⁴⁹⁾를 보다/상가의 7할이 폐허/무참한 숲과 기와 더미〉(1951년 7월 12일자)를 살펴보자.

전화에 휩쓸리고 풀이 죽은 이 잿빛 도시에는 민족의 비극이 낮게 깔리어 있다. 거리에는 일본사람이면 다 잘 알고 있는 전화를 입은 후의 저 독특한 냄새가 가득 차 있다. (중략) 일본군에 의해 건설된 김포비행장에서 경성으로 당도하는 그 아름다웠던 포장도로는 오늘은 군데군데 파괴되어 있다.⁵⁰⁾

같은 날의 마이니치신문 〈이마무라(今村) 특파원, 조선 전선에서 제1보/애처로운 전화(戰禍)의 흔적/폐옥 속에서 연기 나〉도 “경성 부근 비행장 상공에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자 인가가 파괴된 모습이나 폭탄으로 난 큰 구멍 등 생생한 전쟁 재화(災禍)가 보인다. 기자는 이러한 애처로운 광경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태평양전쟁 당

49)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신문 기사가 京城이라는 식민통치기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한국 지명은 한국전쟁 보도 초기에는 교도통신이 현지음과 한자의 병기, NHK가 현지음으로 발표했지만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자표기로 통일되었다고 한다. 그 때 서울의 호칭도 “京城”으로 통일되었을 것이다.《体験者に聞く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2 쪽)

50) 《朝日新聞》1951년 7월 12일자.

시의 일이 생각났다.”고 기사를 끝맺었다.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지 불과 6년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다. 서울의 참상을 눈앞에 둔 기자들이 일본의 전쟁 피해를 연상한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잡지 《改造(가이조)》가 기획한 제1차 파견 중군기자 좌담회 〈조선전선에 중군 하며〉에서도 니혼게이지신문(日本經濟新聞)의 기하라 다케오(木原健男)는 “(서울의) 파괴 상황은 (패전 직후의) 도쿄 이상이며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도했고 “얼핏 보기에 90%가 파괴”⁵¹⁾되었다는 감상을 털어놓는가 하면, 닛폰타임스(지금의 재팬타임스)의 소메카와 요지로(染川洋二郎)도 〈폐허의 조선을 가다〉라는 제목의 수기에서 “허허벌판이 된 도쿄와 히로시마를 보아온 우리의 눈에도 그것은 실로 애처롭게 느껴졌다.”⁵²⁾고 밝히며 그들이 직접 체험한 일본의 전쟁 피해를 웃도는 정도의 심대한 타격이 한국 사람들에게 가해졌다는 사실에 연민을 표했다.

한편 특파원들은 공통적으로 서울 거리에서 식민지기의 흔적을 포착하기도 했다. 스즈카와 기자는 아래와 같이 서울 거리를 걸으며 피해 상황을 보도했다.

일본인이 친근감을 느끼는 장소 중에서도 게이조 긴자(京城銀座)라고 불리던 메이지쵸(明治町)는 엉망진창이고 제대로 서 있는 집이 하나도 없다. 말하자면 기와와 숲 더미며 간혹 집 같은 것이 있더라도 속이 텅 비어 있다. 메이지쵸라는 이름은 조선이 해방된 직후 그 당시 조선인의 대일 감정을 반영해서 바로 〈명동〉으로 개칭되어 버렸다. 종전 전에 또 하나의 일본인 거리 중심지였던 혼마치(本町)는 〈충무로〉로 개칭되었는데 일찍이 번창을 누린 이 지구도 1정목(丁目)에서 3정목까지 거의 전멸되었으며 가끔씩 집이 서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일본인 상가인 고가네쵸(黄金町)[현 을지로]는 1정목에서 6정목까지 파괴되어 있다. 여기서도 옥내가 텅 빈 빌딩이 2, 3채 눈에 띄었다. 2차대전 전에 6층짜리를 자랑했던 조지야(丁子屋)백화점[현 롯데백화점 영플라자]은 흔적도 없이 당하여 기둥 몇 개만 허무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전의 미쓰코시(三越)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나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도 전파되어 있으며 전 아사히신문 지국도 반 정도 소멸되고 벽에 그려진 사기(社旗)마크가 빛바래 간신히 판별할 수 있다.⁵³⁾

그는 메이지쵸나 혼마치와 같이 일본인이 지은 지명을 밝혔고 마치 일본 도시가 파괴된 것처럼 탄식을 내지르며 피해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또 해방 이후 “조선인의 대일감정” 때문에 지명이 개칭되었다는 해설을 덧붙였다. 이마무라 기자도 마이니치신문 7월 14일자에 파괴된 〈교마치〉(京町)[현 용산구 문배동]를 찾아가 모리나가(森永), 메이지(明治) 등 일본 과자회사의 간판, 폐허 속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51) 《改造》 32권 10호, 1951년 9월, 136쪽.

52) 《地上》 5권 10호, 1951년 10월, 50쪽.

53) 《朝日新聞》 1951년 7월 12일자.

있는 얼음 깎기와 일본식 화로, 타고 남은 일본 가옥 등을 관찰하여 보도했다. 이마무라 기자 역시 마이니치신문 경성지국 터를 방문하여 벽에 남은 빛바랜 사명(社名)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사뭇 흥미롭기까지 하다.

이듬해인 1952년이 되면 서울이 복구되는 모습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마이니치신문의 니이노(新野) 특파원은 1·4후퇴 1주년을 맞은 서울의 신정 풍경을 전했다.

경성의 인구는 65만 명까지 급증했다. 시내에는 매일 전차가 6개 계통, 버스가 약 20개 노선 운행되고 있다. 시내 도처에 노천 시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시장에 가면 쌀, 보리 등 식량에서 조리된 식물, 연료, 의류, 서적, 가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필품을 찾을 수 있다. 또 시내에는 영화관도 7, 8관 있고 한국영화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이태리 작품도 상영하고 있다. 하여간 작년 설날에는 남으로 남으로 도피 길에 올랐던 사람들의 약 반수가 올해는 경성에서 설을 맞을 수 있게 된 셈이다.⁵⁴⁾

아사히신문 도미시게 특파원도 3월 19일자 기사에 “1년 전에 20만 명이던 시내 인구는 경성 남쪽을 흘러가는 한강의 도선(渡船) 제한에도 불구하고 70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서울의 인구 팽창을 전하면서 종로, 을지로, 동대문시장 등지의 번잡함을 묘사했다. 그러나 영화관은 “어디로 가도 손님은 군인이나 순경이며 일반인은 아직 오락을 즐길 여유가 없다”라고 관찰했고, 그 이유를 일본의 2, 3배에 달하는 물가고가 일반 시민의 생활을 궁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도미시게 기자는 “경성 부근의 치안은 잘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라는 감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인상으로 기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 도시에서 의외로 느껴진 일이 세 가지. 큰길은 항상 비교적 잘 청소되어 있다. 거의 부랑아가 없다. 낮에 외국병사와 같이 걸어 다니는 화려한 여자의 모습이 안 보인다. 종전 직후의 일본 도시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⁵⁵⁾

미군의 일본 점령이 끝난 1952년 5월 이후에는 중군기자들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산까지 취재 범위를 넓혔다. 아사히신문 도미시게 기자는 1952년 8월 26일자 기사로 서울로의 천도를 눈앞에 둔 “임시 수도” 부산의 거리를 취재했다. 그는 한국에서 택시가 많이 돌아다니는 유일한 거리지만, 요금은 굉장히 비싸고 승객은 다 “아이노리”라는 일본어를 그대로 쓰면서 합승을 하며, 광복동에는 고급 외국제품을 파는 상점들이 늘어선 한편, 주변의 산은 꼭대기까지 판잣집으로 덮이고 있다는 등, 사방에서 유입된 피난민으로 완전히 변모한 항구도시의 풍경을 꽤나 자세하게 묘사했다. 그 중 아래의 대목은 무척 흥미롭다.

54) 《毎日新聞》 1952년 1월 4일자.

55) 《朝日新聞》 1952년 3월 19일자.

거리에는 일본제품도 많다. 카메라, 의류, 장신구, 화장품 이외에 잡지가 눈에 띈다. 야시장의 노점에서는 단행본, 改造, 中央公論, 世界, 文藝春秋에서 영화, 대중물, 에로잡지까지 없는 것이 없다. 종합 잡지는 1권에 1만원, 5천원 정도인데 조선 문제 등 한국과 관계가 있는 평론이 게재되면 1만 8천원 선까지 경충 뛰어오른다. 週刊朝日は 3천원. 일본 정가의 약 100배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이런 책들은 주로 UN군 관련 해상 수송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일본인 선원이 가지고 온다고 한다. 매주 수, 토요일에는 하네다에서 날아오는 정기 항공편으로 일본 신문 수천부도 수송된다. 이러한 잡지와 신문은 항상 팔다 남은 것은 없지만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면 종종 정부가 압수해 간다. 구독하는 이들에게 물어보니 “일본 출판물은 한국 것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냄새가 난다”고 한다.⁵⁶⁾

이 기사에 따르면, 일본 출판물이 정가의 백배 값으로 팔리는 상황은 단지 오락에 대한 갈증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 출판물이 담고 있는 정보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즉, 이는 당시 한국 언론이 심각한 언론 통제 하에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이니치신문 구로사키(黒崎)도 1953년 1월 19일자 기사에 인구증가, 주택난, 심한 교통량, 물가고 등 앞의 아사히신문 기사와 비슷한 사회문제를 호소하는 한편, 난로에 불을 피운 다방이 번창하며 상인과 브로커들이 그곳을 상담 장소로 삼아 2~3시간이나 버티고 있는 풍조에 주목해 ‘다방’을 부산의 한 특징으로 보도했다.⁵⁷⁾

ㄴ) 한국인의 대일 감정, 대일 이미지

한국인의 대일감정은 일본종군기자의 큰 관심거리였다. 특히 종군기자가 파견된 1951년 7월은 대일 강화회의(9월 4일~8일)를 눈앞에 둔 시기였고, 기자들은 강화회의에 대한 한국인의 심정을 중심으로 취재·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의 이마무라 특파원은 7월 27일, 〈정전 후의 한국/“부흥”과 “방공(防共)”에 일본의 원조 열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해설했다. 기사는 정전 후 한국이 직면할 중대한 문제는 경제와 정치, 즉 경제재건과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 후, 한국인 식자층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일본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경제부흥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한국인은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이 깊은 동정과 적극적 협력을 보여줄 것을 갈망

56) 《朝日新聞》 1952년 8월 26일자.

57) 《毎日新聞》 1953년 1월 19일자.

하며 믿을 만한 대상은 일본인 밖에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본인은 조선을 직접 알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본인이) 과거 조선 통치의 경험으로 문제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귀한 경험과 일본인이 아시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일본은 한국이 현재 필요로 하는 각종 생산물의 규격을 알고 있다. (중략) 한국인 측은 일본 측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한국을 원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과거 한국을 착취한 대가를 치를 최선의 길이며 혹시 일본이 관용과 성실을 가지고 협력을 보이면 일본과 한국 사이에 최량의 우호관계가 확립될 것이다.

정치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인은 일본이 공산주의의 위협을 더 인식하고 재무장에 한층 더 깊은 관심을 가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모든 한국인은 통일 아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식계급 및 현실적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 한국 문제는 세계적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각축의 일부이며 한국 문제만이 앞서 해결될 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략) 그들은 일본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공산주의 진출을 막는 한국을 위해, 또 미국을 위해서도 일본은 재무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 지식적, 실제적인 한국인은 일본이 아량으로 한국을 원조하고 양국이 공산주의라는 공통의 적에 대항하여 협력하면 양국 간에 진정한 우호관계가 부활하고 양국이 극동의 안정적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⁵⁸⁾

즉, “과거 한국을 착취”한 것을 전제하면서도 조선 통치는 한국의 이해를 도모한 “귀한 경험”이었으며, 일본이 요청받은 것은 착취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관용과 성실”, “아량”에 기초한 “협력”과 “원조”이다. 나아가 공산주의라는 “공통의 적” 아래 일본의 재무장도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이후 한일협정에서도 계속 반복되었는데, 일본 기자에게 이러한 견해를 피력할 수 있었던 한국인은 일본어로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식자층”이었다.

한편 아사히신문의 에나(衣奈) 특파원은 8월 11일자 〈한국민의 대일감정/강화회의에 높은 관심/“호감”에 명확한 일선(一線)〉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대일 강화회의에 대한 한국 측 요구를 (1) 강화회의 참가, (2) 한국에 남겨진 일본의 재산권 포기, (3) 맥아더 라인 유지 등으로 정리한 후 서울 시민의 목소리를 아래와 같이 소개했다.

그러나 “일본어를 아는 사람들”에게 경성의 거리에서 직접 위와 같은 소리를 듣기는 어렵다. 수도 경성은 너무나 전선에 가까운데다 시가지는 파괴되어 있어 시

58) 《毎日新聞》 1951년 7월 27일자.

민 감정은 복잡하다. 경성에서 들은 시민의 대표적 견해는 이렇다. “40년에 걸쳐 일본인이 지은 건물들은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남은 거란 뭐가 있어요?” (중략) 한국인은 겉으로는 일본의 사정이 호전되는 것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명확한 선을 긋고 있는 듯하다. 즉, “우리는 항상 일본의 좋은 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의 기본적인 요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일반적인 태도인 것이다.⁵⁹⁾

이 기사는 결국 한국인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강화 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침략 책임을 확실히 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대일 강화조약 조인 후에 같은 기사가 쓴 〈한국인의 대일 감정/대일 강화 제외에 불만/일반적으로는 적대 감정 탈해져〉 (9월 13일자)에서는 뉘앙스의 변화가 엿보인다. 기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AP통신 인터뷰에서 UN이 한국보다 일본의 경제 재건을 중시하는 데에 불만을 토로했고,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보였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일본에 대해 근본적으로 경계를 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러한 의식의 밑바탕에는 일본이 한국전쟁으로 얻은 경제적 번영에 대한 전망에 근거하는 “어떤 종류의 편견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단정했다. 그러한 전제 아래 기사는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과 일본의 원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반감정은 일본에 대한 적대 의식을 점점 줄이는 경향에 있다”고 결론내리고 그 근거로 한국인들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들었다.

“언제 일본 책을 자유롭게 구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일본으로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것일까?” “언제쯤 되어야 일본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을까?” 한국인들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매일 매일 자꾸 받는다. (중략) 우리와 같은 일본어를 말하는 한국인은 일한 양국 간에 정상적인 관계가 빨리 열리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⁶⁰⁾

요컨대, 한국의 대일감정이란 이승만의 견해로 대표되는 일본에 대한 불만과 빨리 일본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일반감정의 두 가지가 혼재돼있다는 것

59) 《朝日新聞》 1951년 8월 11일자.

60) 위와 같음. 그런데 이 기사는 독도 영유권 문제도 큰 현안사항의 하나로 소개했는데 흥미롭게도 “독도”라는 한국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고 “다케시마(竹島)”라는 일본 명칭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 기사가 쓰여진 1951년 시점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인에게 아직 낯선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카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는 일본 국민 사이에 “다케시마” 고유영토 의식이 침투한 것은 1952년에 시작된 일본정부의 배타적 캠페인 이후의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梶村秀樹, 1992 〈竹島=獨島問題と日本國家〉《梶村秀樹著作集第1卷 朝鮮史と日本人》347쪽. 초출은 1977 《朝鮮研究》日本朝鮮研究所, 162호).

이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를 한 대상은 “우리과 같은 일본어를 말하는 한국인”이었다.

이러한 취재대상의 편향은 다른 기자가 쓴 기사에서도 발견된다. 아사히신문 쓰지(辻) 특파원이 쓴 〈한국 지식층이 본 일본/“되풀이되는 헛소동”/민심의 격동은 공통됨〉⁶¹⁾은 한국 식자층의 입을 빌려 일본과 한국이 안고 있는 공통된 사회문제를 말하고 있다. 해방공간에서 좌익적·민족적 입장에서 미군철퇴나 자주통일을 호소하고 국내안 반대투쟁에 참가한 한국 식자층이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면서, 좌익·반미 지향이 강한 일본이 한국의 전철을 밟으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하며 “실력이 없는데 이상(理想)만 추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행위”라고 도리어 충고한다. 여기에 등장한 지식인은 역시 의대 출신 군의관이나 보병 장교, 도쿄대학에 유학하고 있다가 전쟁 발발로 고향에 돌아온 청년으로 “일본에 대단한 관심 - 그것도 동경에 가까운 관심을 가지고 일본 소식에 주린 한국의 인텔리”들이었다.

일본이 독립을 되찾은 후에는 1952년 10월에 실시된 일본의 제25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이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초점은 역시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모아졌다. 당시 재무장 문제는 일본인의 최대 관심사였고 재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도 찬반이 엇갈린 상태였다.⁶²⁾ 더구나 군대 보유를 금지한 새 헌법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이 재무장의 발판이 된 경찰예비대 창설의 계기가 되었던 만큼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의중을 살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아사히신문 나카무라(中村) 특파원은 〈“이 선거”를 한국은 어떻게 보는가?/재무장에 높은 관심/연립내각 예측도〉⁶³⁾라는 제목 아래 “부산에서는 밤이 되면 집집마다 라디오에서 일본 뉴스나 뉴스해설 소리가 흘러나오고 한 달에 5만원(일본 돈으로 약 1200엔)이나 되는 일본 신문이 잘 팔린다”고 일본에 대한 부산 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전하면서, 재무장에 소극적인 일본 여론에 대해 “뉘 빠졌구만. 뭘 그래? 일본사람은 공산군 무서운 줄 몰라. 우리가 군비와 징병을 아껴서 이 지경이 된 거 못 봤어?”라는 한국인의 반응을 소개했다. 그리고 “만일 일본군이 오면 우리의 총구는 그들을 향할 것”이라는 이승만의 말에 대해 한 정부 고관이 몰래 일본어로 “그것은 정부의 슬로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략) 한국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경쟁심을 부채질하는 것이 가장 쉬운 단결법이랍니다.”라고 설명해 주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마이니치신문 아사오카(淺岡) 특파원도 비슷한 시기에 〈총선거에 한국민의 관심/재무장 동향을 주시/“우호관계 앞당기는 기운을”〉이라는 기사에서 역시 일본 재무장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의견을 소개했다.

61) 《朝日新聞》1951년 10월 28일자.

62) 《朝日新聞》1952년 9월 21일자. 아사히신문이 1952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20%가 “재무장 문제”라고 회답하고 2위의 “국민생활의 안정” 12%를 크게 웃돌았다. 또 한국전쟁을 계기로 맥아더의 지시로 창설된 경찰예비대를 정식 군대로 개편할 문제에 대해 찬성이 38%, 반대가 33%, 모르겠다가 29%였다.

63) 《朝日新聞》1952년 9월 15일자.

대구의 한 다방에서 어느 한국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일본의 라디오 방송에서 한 후보자가 재무장론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공산주의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한국까지 닥치고 있는 마당에 일본이 방위력을 안 가질 이유가 어디 있겠소. 일본인은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본은 3년 전의 한국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고 그는 흥분했다. 그러나 모든 한국인이 재무장에 찬성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일본 재무장에 명확한 위협을 느끼는 한국인도 꽤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과거 35년간의 일본 통치에 대한 쓰라린 경험이 아직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만일 일본이 재무장하고 한국까지 원조하러 오면 일본이 하는 일이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결국 한국동란에서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는가, 과거 일본이 조선통치에서 보여준 위협을 보다 강하게 우려하는가에 따라 일본 재무장에 대한 감각이 뚜렷하게 정반대가 되어 있다.⁶⁴⁾

위와 같이 아사히와 마이니치는 재무장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의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구도를 그려냈다. 하지만 아사히가 이승만 정부와 일반 국민의 대립으로 분열의 구도를 제시하는 한편, 마이니치는 일반국민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양사가 노정한 보도 자세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ㄷ) 휴전 협정에 대한 한국 여론, 한국인의 전쟁관

다음으로 한국인 자신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자. 일본인 기자가 파견된 시기가 휴전 회담이 시작된 이후였기 때문에 기자들은 필연적으로 휴전 회담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을 적극적으로 다루었다.

1952년 가을 인도가 UN총회에서 포로 문제 타협안을 제출한 후 마이니치신문 구로사키 특파원은 〈휴전에 대한 복잡한 한국민의 심리〉 (11월 16일자)라는 기사에서 “[인도안]에 대한 한국민 일반의 심리는 극히 복잡하다. 즉,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을 원하는 자와 한국이 두 개로 갈라진 채 휴전이 되면 통일 염원은 영원히 이룰 수 없게 된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인의 피를 흘렸는가, 라고 당황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라고 쓰면서, 휴전 반대 운동의 고조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마음이 전쟁과 평화를 둘러싸고 두 개로 분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부상병 포로 교환협정이 체결되어 휴전 회담 재개 기운이 높아지기 시작한 1953년 4월에는 남한 내 휴전 반대 여론이 한층 더 고조되었다. 구로사키 기사는 4월 7일자 〈휴전 회담 재개/한국인의 표정/성립되면 “통일” 어려워져/가까워진 평화에 희비가 엇갈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정부와 언론의 휴전 반대 소리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원하는 한국인들의 미묘한 심리를 그려냈다.

64) 《毎日新聞》1952년 9월 22일자.

한국 신문들도 휴전 문제를 많이 다루고 사실이나 해설로 왕성하게 주장을 털어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오십보백보다. 결국 휴전이 실현하리라고 보면서도 꽤 회의적이고 지면 전체가 경구(警句)와 비장감으로 넘치고 있다. 한국 인텔리 층의 많은 부분이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입버릇이 “이제 전쟁은 싫다”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휴전을 환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중략)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아 한국인의 마음이 1년 전 또는 반년 전보다 밝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피난과 유랑의 생활이 끝나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휴전 회담이 재개되고 전쟁이 끝나면 가난 하더라도 평화스러운 생활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⁶⁵⁾

6월 8일 휴전회담 의제들 중 마지막까지 남겨진 포로 문제에서 UN군과 공산군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자 한국 정부와 국민의 휴전 반대 움직임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 양상을 전한 6월 12일자 마이니치신문의 2면은 꽤나 인상적이다. 지면 맨 위에 〈한국민의 비분도 아랑곳없이 휴전으로…툽니바퀴는 돌아간다〉라는 제목을 걸고 아시다 특파원은 서울 거리를 메운 30만 시위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어깨동무를 끼고……일본인의 눈으로 보면 꼭 공산주의자의 시위 방식인데…….” 중군기자들이 체류하는 UN군 중군기자단 숙소도 학생 시위의 표적이 되었다. “오늘도 파란 반소매 셔츠 교복을 입은 경성 시내 중학생들이 수백 명이나 몰려오고 《한국을 또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지 마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북진! 북진!》을 절규한다”고 학생 시위대의 필사적인 모습을 기사에 실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와 같은 면 하단에 게재된 〈휴전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 사이에 〈경성 거리에 화려한 새색시의 모습/일선에서는 휴전 나팔 기다릴 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다는 점이다. 이 기사는 특파원이 직접 보고 느낀 서울의 편안하고 한가로운 풍경을 묘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흥분과 동시에 내가 이 두 눈으로 본 것은 평화스러운 신록의 경성 거리다. 불에 탄 빌딩 그늘 아래 이마에 땀을 흘리며 커다란 장롱을 지게로 나르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고 중앙청 앞 큰 거리의 플라타너스 가로수 아래에는 기와를 실은 마차나 벽토를 나르는 조선 말이 따가닥따가닥 걸어갔다. 오색(五色) 테이프로 장식된 자동차가 몇 대 새색시의 발랄한 마음을 태우고 신랑이 기다리는 결혼식장으로 향한다. 호령만 떨어지면 시민의 3분의 2가 거리로 뛰어나간 대규모 시위는 과연 언제였을까. 경성 거리에서는 “이제 평화가 왔다”는 표정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집 가격도 비록 현실로 매매는 없지만 며칠 사이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고 한다.⁶⁶⁾

65) 《毎日新聞》1953년 4월 7일자.

아사히신문 나카무라 기자도 UN군 종군기자단 숙소를 기습한 학생 시위대의 모습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보도했다.

기자단 숙소는 시위대, 특히 여학생 부대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의 눈물을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세계로 알리는 것이 시위대 리더의 목적일 것이다. 학교마다 4~500 명씩 집단으로 몰려오고 일제히 울부짖는다.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다. 머리를 흔들리며 MP에게 덤벼들기도 하고 큰소리로 외쳤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까지 한다. 그들의 눈물은 (중략) 같은 아시아인의 눈으로 보는 기자에게는 민족의 비운을 하늘을 향해 한탄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호소하는 상대를 결코 화내게 해서는 안 될 시위인 것이다. 67)

그런데 이 기사는 동시에 상이군인 시위대가 기자단 숙소를 경비하는 한국인 경찰관과 몸싸움을 일으켰으나 미군과의 충돌은 신중하게 피했다고 전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나 한국 언론이 시위를 “애국심” 또는 “민족의 분노”라는 문구를 들어 칭찬하는 한편 시위대에게는 자제를 요구했으며, 6월 11에는 부산에서 미군의 발포로 시위대원 2명이 부상당했는데 한국 신문이 이 사건을 1단의 아주 작은 기사로만 취급했다는 등의 사실을 소개했다. 즉, 이 기사는 남한의 휴전 반대 시위가 겉으로는 격렬하지만 그것이 한미 간의 결정적인 균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제받고 있다는 인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나카무라 특파원은 이어 7월 18일자 〈휴전색(休戰色)에 물들어가는 경성〉에서 격렬한 휴전반대 슬로건과는 별개로 수도로의 복귀를 착실히 준비하는 서울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요즈음 경성은 완전히 휴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관념으로 말하면…… 조금 전에 들린 “휴전 반대” 의 외침이나 “북진 통일”의 울부짖음이 아직 생생하게 귓전에서 떠나지 않는데 거리는 천연한 얼굴로 시치미를 떼고 있는 듯하다. 공산 측의 대공세로 한국군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비보도 아랑곳하지 않는 불가사의한 “낙관론”이다. 정부 각부서도 거의 모두 부산에서 복귀 완료했다. (중략) 무엇보다도 이승만 대통령 자신 이제 부산으로 갈 생각조차 없다.68)

일본기자들이 휴전반대 시위로 들끓고 있던 서울 거리에서 애써 발견한 한국인의 염전(厭戰)기분과 평화스러운 풍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후에 같은 시기 한국 언론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66) 《毎日新聞》1953년 6월 12일자.

67) 《朝日新聞》1953년 6월 15일자.

68) 《朝日新聞》1953년 7월 18일자.

ㄷ) 한국전쟁과 일본인과의 관계, 일본의 전쟁개입

일본과 한국전쟁의 관계를 다룬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일본 독립 후의 특장이다. 아사히신문 나카무라 기자는 1952년 11월 16자 〈조선전선에 일본병기/공산측에 불을 뿜다/한국인은 말한다, 팔짱만 낀 일본인〉이란 기사에서 병기, 탄약, 지프차, 군용담요, 심지어 외투까지 전선에서 사용되는 일본 제품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현실을 자세히 전해주었다. UN군 전투부대는 한국에 있지만, 사령부와 보급기지, 항공기지는 전부 일본에 있었다. 어느 날 기자는 전선의 화장실에서 “일본 탄광이 파업 중이기 때문에 온수 공급시간 제한됨”이라는 공고문을 발견했다. 외국 특파원이 흔히 “재팬-코리어 에어리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는 이제 바다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한국인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모든 한국인이 말한다. 그 천문학적인 ‘돈’[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지출한 200억 달러]의 상당부분이 일본인의 품에 들어갔다고. “일본인은 실속만 차리고 있네. 우리가 피를 흘리고 시달리고 있는데 일본인은 특수, 신탁수로 편안하게 부흥해 왔다. 한국에서는 발행 통화 7500억 원(일본의 약 190억 엔) 중 77%가 전비로 사라지고 인민은 나머지 불과 23%로 간신히 살고 있는 거야.” 일본에 대해 꽤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러나저러나 화제에 오르는 대일 감정의 뿌리는 이런 데에 있는 것이다.⁶⁹⁾

이 기사에서 나카무라 기자는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 시치미를 떼는 일본인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일본이 병기를 제조하고 기지를 UN군에 공여한 사실은 지적하면서도, 구 일본해군 소해정이 인천과 원산 앞바다에서 소해(掃海)작업에 참가했고 1척이 기뢰 접촉으로 침몰하여 사상자가 났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⁷⁰⁾ 이 사실은 이미 도쿄신문(1951년 10월 9일자), 아사히신문(1951년 10월 22일자) 등에 의해 보도된 바 있었다. 나카무라 기자는 이를 몰랐던 것일까, 아니면 미군의 검열 정책에 의해 쓸 수 없는 주제였는가?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은 당시 일본국회나 사회적으로도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마 나카무라 기자도 몰랐을 공산(公算)이 컸을 것이다.

나카무라 기자는 이후에도 한국전쟁과 일본인의 관계에 대해 몇 번 정도 더 다루었다. 그는 1953년 1월 16일자 〈조선 전선에 날아가는 일본인의 혈액/이미 7천 명 분 보내져〉에서 한국 전선에서 매일 필요로 하는 혈액 250파인트 중 상당수가 도쿄에서 군용기로 공수되고 있고 그 중에는 히로히토 일왕의 동생이나 도조 히데키(東條英機)의 딸, 유명한 씨름꾼의 피도 포함되어 있다고 일본의 전쟁협력 ‘비화’를

69) 《朝日新聞》 1952년 11월 16자.

70) 南基正, 2000 《朝鮮戦争と日本—〈基地国家〉における戦争と平和》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博士論文, 117~137쪽. 大沼久夫, 2006 〈朝鮮戦争とは何か〉 《朝鮮戦争と日本》 新幹社, 104~107쪽.

전했다.⁷¹⁾

1월 25일자 〈조선 기지에 일본인 노무자/합정 수리에 종사/연간 2억의 외화 벌어들임〉라는 제목의 기사는 놀랄 만한 사실을 전해주었다. 취재 여행으로 인천에 간 일본인 기자단이 UN군 기지의 철조망 안에서 일하는 47명의 일본인 노무자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들은 미군이 지급한 천막 안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UN군 함선을 수리하고 있다. 일본인 노무자들은 교대방식을 통해 밤낮없이 일했고, 그들을 지휘한 도노(戸野) 기사장은 한국전쟁 개전 이래 그들을 데리고 계속 UN군을 따라 다니며 일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은 여권도 한국 돈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가 한국정부가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출할 수도, 물건을 살 수도 없었고 기지 안에서 한발 짝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이 기사는 그러한 일본인 노무자가 부산항에 1000명, 군산에 30명, 마산에 17명이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에는 이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못 찾았다. 같은 날 인천을 방문한 일본기자단에 마이니치신문 기자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이 시기 《마이니치》에서 일본인의 한국전쟁 개입을 주제로 한 다른 기사도 찾을 수 없었으니 이것은 두 신문의 보도자세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월 1일자 《아사히신문》의 〈경성에 잔류한 일본인 여성〉은 한국인과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있는 4명의 일본인 여성들과 만나 그들의 삶과 일본인의 눈에 비친 한국사회를 그렸다. 그해 2월에 평화선 침범으로 일본 어선이 나포되고 충격을 받아 선원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데도 불구하고 4명 중 2명은 사건 자체를 몰랐고, 나머지 2명도 그 사건으로 학대받은 일은 없었다고 말을 맞추었다. 일본식 사시미(회)나 스노모노(초무침)를 대접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오히려 한국 사람은 “[한국]동란 이후 친절해졌고 태연하게 일본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또 다른 여성은 한국인이 전쟁 때문에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같은 동양인끼리 이해하기 쉽다고 말을 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흥미로운 증언을 남겼다.⁷²⁾

이상과 같이 특히 《아사히신문》에 일본의 한국전쟁 관여에 대한 중요한 기사가 몇 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시기 일본이 특수로 경제 부흥을 이루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직접적인 관여도 상당히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실 직접적으로 한국전쟁에 관여한 일본인들의 존재는 거의 망각되고 말았다. 한국전쟁은 일본인들에게 잊혀진 전쟁이었고, 한국전쟁에 관여한 일본인 역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3. 日本人 記者의 報道에 나타난 特色

이상에서 일본인 종군기자가 생산한 기사를 4가지로 분류해서 자세히 살펴본 결

71) 《朝日新聞》 1953년 1월 16일자.

72) 《朝日新聞》 1953년 3월 1일자.

과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일본 종군기자들은 한국의 전쟁 피해에 대해 깊은 동정을 표하면서도 탈(脫)식민주의화의 과제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인식에 일제시기와의 연속성이 나타났다. 한국에 도착한 기자들은 서울을 ‘게이쵸(京城)’로 표기하면서 ‘메이지쵸(明治町)’ ‘고가네쵸(黄金町)’와 같은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다.⁷³⁾ 특히 ‘京城’은 한국전쟁이 휴전될 때까지 계속 사용되었으며 ‘서울’이라는 정식 명칭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⁷⁴⁾ 그들은 조지야(丁子屋)나 미쓰코시(三越)백화점과 같은 일본인이 지은 건물들을 찾아다니면서 빛바랜 일본어 간판이나 일본식 화로를 발견했다. 한편 서울의 첫인상을 전하는 기사 속에는 한국인의 모습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다.

이 기사들에서는 타국의 전장을 취재하는 긴장감보다는 몰라보게 변해 버린 자기 고향을 보는 듯한 슬픔과 같은 감정이 배어있다. 기자들은 옛 “경성”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 살다가 돌아온 일본인 독자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일본식 지명을 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인 기자들과 다른 나라에서 파견된 종군기자들 사이의 결정적 차이점이기도 했다.

또 일본 기자들은 한국인에 대해 일본어로 취재하는 것을 당연히 했으며 취재 내용 중 한국인이 토로한 일본에 대한 관심이나 향수를 적극적으로 기사화했다. 이러한 기사들에는 한국인이 왜 일본어를 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사상(捨象)돼 있다. 물론 취재에 응한 한국인들도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엘리트층이 많았기 때문에 식민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당시 한국인 중 일본어 사용 인구는 전체 한국인의 약 20% 정도였다는 사실⁷⁵⁾을 감안하면, 일본과의 교류 부활을 간절히 바라는 소리를 한국인의 소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비약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일본 서적을 읽거나 일본어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연령대별·계층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 종군기자는 타국의 기자에 비해 일본어로 취재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그것은 취재 대상의 편향을 초래해 일본에 대해 “동경에 가까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견해를 한국 여론 일반으로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일에 다름 아니었다.

한편 당시 일본에서 큰 이슈였던 대일 강화조약이나 일본 재무장문제 등에 대해 한국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취재 대상은 역시 일본어를 잘하는 지식층이 많았고 이들 의견에는 한국이 전쟁에서 큰 피해를 받은 만큼

73) <전화(戰火)의 흔적·게이쵸(京城, 경성)를 보다/상가의 7할이 폐허/무참한 숲과 기와 더미> 《朝日新聞》 1951년 7월 12일자. <이마무라 특파원 조선 전선에서 제1보/애통한 전화(戰禍)의 흔적/폐옥에서 연기 나와> 《毎日新聞》 1951년 7월 14일자.

74) 아사히신문의 경우 1960년까지 ‘京城’을 사용하고 서울이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부터였다.

75) 김영희, 2009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 1880-1980》 커뮤니케이션북스, 123~124쪽. 다만 주로 일본종군기자들이 취재활동을 한 서울 도심부의 일본어 사용자의 비율은 더 높았을 것이다. 일본 강점기 서울 교동소학교에 자제가 재학하는 가정의 일본어능력 조사를 보면 “회화에 지장이 없는 자”의 비율이 1939년부터 1940년 사이에 39%에서 69%로 급격히 높아졌다 (井上薫 <日本統治下末期の朝鮮における日本語普及・強制政策> 《北海道大学教育学部紀要 73》 1997, 130쪽).

일본도 재무장하여 공산주의의 침투에 대비해야 한다는 친일적·반공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일 강화회의를 앞두고 일본의 여론은 크게 양분되어 있었다. 좌파·지식인층은 ‘전면강화’와 비무장을 기본으로 한 중립론을 제창하고 우파·일본정부 측은 ‘단독강화’와 재무장을 통한 미일동맹 구축을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넋 빠졌구만. 일본사람은 공산군 무서운 줄 몰라”⁷⁶⁾ 라고 질타하는 친일적·반공적 한국인의 반응은 당연히 단독강화·재무장을 정당화하고 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아울러 “믿을 만한 대상은 일본인밖에 없다”⁷⁷⁾고 호소하는 한국 인텔리 층의 목소리는 ‘제국’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한 일본인 기자의 우월감을 자극했다. 그것은 “조선 통치의 경험으로 문제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⁷⁸⁾는 발언에 보듯이 조선 강점을 정당화하고 죄책감을 희석하는 효과를 낳았다.

반공과 경제 부흥을 빌미로 일본의 조선통치를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은 2차대전 후 과거청산이 불충분했던 한일 양국의 사정이 맞물려서 드러난 현상이었다. 일본 언론은 같은 패전국인 독일이나 이태리와 달리 패전 후에도 전쟁에 협력한 회사의 존속이 허용되었고 그 경영간부나 기자들이 통째로 살아남았다. 한편 한국에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정권 유지를 노린 이승만의 방해로 기능을 상실하고 친일 세력 청산 작업이 좌절됐다. 이런 보도에서 드러나는 반공과 일제의 조선통치 정당화와 같은 인식구조는 일차적으로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만났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새로운 일본 중심의 수직적-차별적 냉전질서 구축과 지체된 한일 양국의 탈식민주의가 낳은, 즉 새로운 한미일 구조가 낳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둘째, 기사들에는 미군 검열의 영향과 그에 따른 반공의식이 나타났다. 한국에 도착한 기자들이 먼저 전쟁 피해 상황을 취재한 지역은 서울 중구와 용산구, 김포비행장에서 시내로 향하는 도로 주변이었다. 김태우의 연구에 의하면, 전쟁 초기 미국동공군 소속 B-29중폭격기는 인민군 치하 서울의 교통 요충지를 파괴하기 위해 김포비행장과 서울역, 용산 조차장을 공중폭격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 결과 1952년에 서울시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중구의 경우 주택의 52%, 용산구는 주택의 70%가 반소(半燒)·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그 정도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했다.⁷⁹⁾ 일본 중군기자들이 직접 목격한 서울의 참상은 미국 공중폭격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도쿄와 히로시마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누가 끼쳤는지에 관해서는 함구했다.

미국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패전국민으로부터 UN군 ‘장교’로의 갑작스러운 신분상승이 낳은 서방세계에 대한 친근성의 반영이기도 했다. 이 시기 신문을 보면 외국특파원의 모습을 주제로 한 기사가 눈에 띈다. 일본인 중군기자가

76) <“이 선거”를 한국은 어떻게 보는가?/재군비에 높은 관심/연립내각 예측도> 《朝日新聞》 1952년 9월 15일자.

77) <정전 후의 한국/“부흥”과 “방공(防共)”에 일본의 원조 열망> 《毎日新聞》 1951년 7월 27일자.

78) 같은 기사.

79) 김태우, 2008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논문, 203~209쪽.

파견된 시기는 대일 강화조약 발효 이전이라 일본 신문사가 해외에 기사를 파견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다. 물론 일반 일본인에게 해외여행은 꿈과 같은 이야기였고 거리에서 보는 ‘외국인’은 ‘지배자’인 미군뿐이었다.⁸⁰⁾ 특파원들끼리 교류하는 장면은 지금의 감각으로는 별로 뉴스 가치가 없지만 2차 대전 패배로 식민지를 잃고 해외로 나갈 통로가 완전히 막힌 일본인에게 지면을 통해서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등하게 대화하는 일본인 기자들의 모습은 해외로 이어지는 작은 창문인 동시에 패전의 상처를 가시게 하는 청량제가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이니치신문은 특파원 숙소에서 “UN정신에 걸맞은 우정과 우애가 존재한다”고 자랑스럽게 보도했고⁸¹⁾ 아사히신문도 판문점에서 일본의 경제 부흥을 의심하는 공산측 기자에게 일본제 위스키를 마시게 해서 그 기술력을 납득시킨 장면을 보도함으로써 ‘국제무대에 복귀한 일본’의 이미지를 독자에게 심어주었다.⁸²⁾

셋째, 위와 같은 한계 속에서도 일본 언론 나름의 독자성을 바탕으로 한 비판 기능을 볼 수 있다. 1952년 4월 대일강화조약 체결로 일본이 독립한 후 일부 언론은 이러한 경향이 강해졌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무기, 탄약, 지프차, 군용담요, 심지어 수혈용 혈액까지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의 실태를 자세히 전해주었고 기자 좌담회에서 휴전협정을 지연시킨 원인이 미국의 공산권 봉쇄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⁸³⁾ 이런 기사들은 일본 국내에서 미국의 검열이 없어진 직접적 효과라 할 수 있는데 점령 종료 후 외국서적을 자유롭게 번역·출판할 수 있게 된 일본 출판계의 간접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I.F.Stone의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비사 한국전쟁)》은 원본 출간과 같은 해인 1952년에 일찍 일본에서 번역되어 한국전쟁의 기원 논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미국 음모설에 힘을 실었다.⁸⁴⁾ 같은 해 출판된 잡지 《平和増刊 朝鮮戦争の真相》(青木書店)을 보면 그 시기 일본 출판계 분위기를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잡지는 〈세균병기와 네이팜탄〉 〈집단학살과 테러리즘〉 〈일어서는 빨치산 소년 소녀〉 〈피카소 “조선전쟁의 학살”〉 〈누가 먼저 도발했는가〉 등의 기사들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며 일본인

80) 물론 해방된 재일조선인도 ‘외국인’이어야 할 텐데 2차대전 후 일본정부는 대일강화조약 발효까지, 즉 일본이 정식으로 식민지 조선을 포기하기까지, 조선인이 일본국적을 보유한다고 해석했다. 동시에 출입국관리령과 외국인등록법을 제정하여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관리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해 미국인과 같은 외국인과 동등한 권리(한국정부에 의한 보호권 등)를 주지 않은 채 ‘비(非)일본인’으로 관리·통제하고 국외로 방출할 수 있게 되었다 (鄭榮桓, 2013 《朝鮮獨立への隘路--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學出版局, 4~6, 84~85, 328~330쪽). 현대 일본인의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식은 애매한 것으로 그들을 ‘외국인’으로 보는 의식이 희박하다. 이러한 의식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일제 臣民으로 간주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일본 패전/조선해방 후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81) 〈“폐허 경성”을 장식하는 보도 전쟁/기자 수백 명 집결/숙소는 하루 종일 변방〉《毎日新聞》 1951년 7월 13일자.

82) 〈한국에서 묻는 일본제품의 평판〉《朝日新聞》 1952년 1월 7일자.

83) 〈조선전선에 일본병기/공산측에 불을 뿜다/한국인은 말한다, 팔짱만 낀 일본인〉《朝日新聞》 1952년 11월 16자. 〈조선 전선에 날아가는 일본인의 혈액/이미 7천 명분 보내져〉《朝日新聞》 1953년 1월 16일자. 〈조선 휴전과 금후/대립이 오히려 격화 가능성/남북통일 전망 안 보여〉《朝日新聞》 1953년 6월 16일자.

84) 玉城素, 1967 〈日本における朝鮮戦争観〉《朝鮮戦争史—現代史の再発掘》コリア評論社, 283쪽.

의 양심과 평화주의에 호소했다.⁸⁵⁾

한국의 휴전반대 시위에 대해서도 일본 신문은 독자적인 시각을 제공했다. 서울 시민의 과격 시위를 소개하면서도 그것이 미군과의 충돌은 신중하게 피하고 한미관계를 훼손한지 않도록 통제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시에 새색시를 태운 자동차가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장면 등 서울의 평화스러운 일상생활을 묘사했다.⁸⁶⁾

이러한 일본 종군기자들의 보도를 동시대의 한국 언론 보도와 비교한다면 그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동아일보》 1953년 6월 9일자 휴전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1면 머리기사 〈休戰事實上成立/八日捕虜問題 暫定協定調印〉에서 사실 관계를 설명한 후 그 아래 〈基本策強力執行/政府國會 連席會議서 合意〉 〈決戰態勢確立/公務員服務規程을 決定〉이라는 기사로 정치·행정 분야에 비상이 걸린 것을 알렸다. 가운데 상단에 배치된 〈韓美間意見差異深刻〉이라는 기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성명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친서를 나란히 배치하고 포로 문제와 통일, 평화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심각한 대립이 있으며, 우선 한미 상호안전 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끼리 만이라도 밀고 올라가서 死生을 決斷하여 左右間 統一을 規定내겠다”는 이승만의 “결심”을 소개했다. 2면 머리기사는 한층 더 격렬한 편으로, 〈國民의 失望은 最絶頂/죽엄의 休戰不拘/統一의 聖業에 總進軍하자〉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온 국민의 쫓기를 부추겼다.

『單獨北進統一』에의 길로 우렁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닥쳐오고 있다. 아니 이미 문전에도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민족 『唯一의 길』을 앞에 놓고 우리 총후 국민은 어떻게 하여야만 하고 또한 어떠한 각오를 가져야만 되겠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아니한가! 일체의 구각을 깨끗이 버서버리고 새로운 정신 하에 일치단결하여三八선을 넘을 우렁찬 북진의 신호나팔에 발 마쳐 전진 있을 뿐인 것이다. 국난에 있어 배달민족은 굳세어디나라 百만 당나라 군사를 쳐물린 『살수전』에서 그러했고 세계만방에 『自由民』임을 외친 『己未 쫓기』가 이미 증명하고 있지 아니한가? 민족의 얼은 이제 그 진가를 다시 한 번 과시할 때는 온 것이다. 온 겨레여! 이리서자. 그리하여李대통령의 그 백절불굴의 “통일 독립” 쟁취의 기치 아래 뭉쳐 전진하자! 三천만 동포여! 『통일 없는 휴전보다 죽엄』 -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구호인 것이다. 자! 이제 이리서자!⁸⁷⁾

이 기사는 신문기사라기보다 선동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강도 높은 문구가 나열되었다. 흡사 내일 다시 전면전을 시작할 듯한 논조의 보도만으로는 새색시를 태운 자동차가 거리를 오가는 서울 시민의 일상생활을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한국 언론과 달리 일본인 종군기자들은 압도적인 휴전 반대 여론과는 비교적 거

85) 이 잡지는 증판되어 20만부정도 팔렸다 (松浦總三, 앞의 책, 351쪽).

86) 〈경성 거리에 화려한 새색시의 모습/일선에서는 휴전 나팔 기다릴 뿐〉《每日新聞》1953년 6월 12일자.

87) 《동아일보》1953년 6월 9일자.

리를 둔 채, 한국 사회 저변에 흐르는 조류를 감지하여 한국인들이 “통일”을 갈구하는 동시에 “평화”를 절실히 요구한다는 분위기를 포착하고 기사화할 수 있었다. 일본인 기자가 그러한 다면적 보도를 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첫째, 그들이 외부적 존재였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인 눈으로 사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외국 언론은 한국 정부의 검열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 셋째, 무엇보다 일본인 기자들 자신이 2차대전이라는 민족 멸망의 벼랑 끝에서 간신히 얻은 평화의 소중함을 몸으로 실감했기 때문이었다. 도쿄와 히로시마의 폐허 속에서 얻은 삶의 소중함이란 가치는 당시 일본인 대다수가 공유한 가치관이었다.⁸⁸⁾ 중군기자들은 전쟁의 비참함을 서울에서 다시 발견했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이제 전쟁은 싫다”라는 기분에 공감하며 애써 염전(厭戰)기분과 “평화스러운 풍경”을 찾아내어 일본인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만 일본의 평화주의는 어디까지나 가해자 책임을 잊어버린 피해자로서의 평화주의였다. 그 한계를 표출한 단적인 예로 앞에서 소개한 잡지 《平和増刊 朝鮮戦争の真相》의 신문광고 선전문구를 들 수 있다. “조국 일본을 결코 제2의 조선으로 만들면 안된다! 8천만 일본 민족의 애국심에 호소하기 위해 우리는 이 특집을 엮었다” “평화를 지키자! 일본을 구하자.”⁸⁹⁾ 이 선전문구에서는 일본의 조선강점이 민족분단과 한국전쟁을 초래했다는 책임의식을 전혀 느낄 수 없고 거기에 있는 것은 ‘전쟁 피해자로서의 일본인’뿐이다. 극동 군사재판에서 난징대학살의 사실이 밝혀졌을 때 《아사히신문》은 “진실한 보도를 담은 한줄의 기사도 없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⁹⁰⁾이라고 반성의 변을 토로했다. 그러나 그러한 가해 의식은 끝내 일본인의 집단적 기억을 형성할 수 없었다.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이 저지른 갖가지 가해 사실에 대한 인식이 널리 여론화되기 전에 중국에 공산주의국가가 탄생하고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은 정책적으로 일본인에 의한 잔혹행위의 기억을 들추어 내지 않았다.”⁹¹⁾ 미국 비호아래 냉전체제와 결탁한 ‘피해자로서의 평화주의’는 일본의 재무장과 무력행사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힘이 되었더라도 미군의 한국전쟁 개입에 반대할 논리를 구축할 수 없었다. 가해자 의식의 희박함이라는 한계성은 중군기자들의 기사에서도 식민지주의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맺음말

한국전쟁은 일본이 미군의 점령 하에 있을 때 발발했다. 당시 일본 언론은 미군의 검열 아래 엄중한 통제를 받았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는 이른바 “레드퍼지(빨

88) 이 시기 일본인의 ‘평화주의’에 대해서는 존 다우어, 최은석 옮김, 2009 《패배를 껴안고》 민음사 (원본은 John W. Dower, 2000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W W Norton & Co Inc) 를 참조.

89) 《朝日新聞》 1952년 9월 22일자.

90) 〈天声人語〉《朝日新聞》 1946년 7월 27일자.

91) 존 다우어, 앞의 책, 664쪽.

갱이 숙청)”가 시작되었다. 1950년 6월 초 GHQ는 일본공산당 간부의 활동을 금지시켰고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에 대해 “남한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발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타 언론기관에서도 공산당 동조자로 간주된 직원들이 700여명이나 추방당했다.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전쟁 초기 일본 미디어는 서울의 군·언론에 국제전화로 취재하는 등 그 나름의 노력을 했고 비교적 정확한 전황을 독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서울 함락 후에는 독자적이 정보원이 없어지고 미군의 공식발표나 미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외국 통신사의 송신 기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미 점령 아래 일본 언론은 한국으로 특파원을 보낼 수도 없었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바뀐 계기는 휴전회담이었다. 맥아더 해임에 따라 연합군 총사령관에 취임한 리지웨이는 전임자보다 비교적 투명성이 있고 유화적인 언론 정책을 펼쳤다. 그는 일본 주요 언론사에 대해 한국에 특파원을 보낼 것을 허용하고 1951년 7월 11일 제1진 16사 18명이 UN군 중군가자로 서울에 파견되었다. 한국으로 파견된 중군기자들은 미8군의 관리 하에서 영관급 대우를 받고 교통·통신 수단이나 숙박시설 등 온갖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모든 기사는 송고하기 전에 영어로 보도자문과(PAD)에 제출하고 사전검열을 받아야 했다. 검열에서는 부대명이나 사망자수는 물론, 세균전, 포로학대, 월남민의 증언과 같은 한국전쟁의 성격을 특징짓는 핵심적인 정보는 엄중하게 통제되었다.

그러한 제약 속에서 생산된 일본 중군기자들의 기사를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검토해보면 이 시기 일본의 한국전쟁 보도의 성격과 정치적 기능이 들어난다. 첫째, 기사에는 탈(脫)식민주의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일제시기와의 연속성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로 한국이 독립하고 제도적으로 완전히 ‘외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자들은 ‘게이쵸(京城)’, 메이지쵸(明治町), 고가네쵸(黄金町)와 같은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것은 기사를 쓴 기자 자신뿐만 아니라 언론사 전체와 독자들도 의식 속에 아직 식민지 조선이 살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자들은 잿더미가 된 서울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파괴의 참상에 경악하고 동정을 표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외국의 도시를 보는 시각이 아니었다. 폐허 속에서 일본인이 지은 건물들을 찾아다니는 등, 그들의 기사에서 흡사 자기 동네가 피해를 당한 것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다. 또 일본 기자들은 한국인에 대해 일본어로 취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한국인이 토로한 일본에 대한 관심이나 향수를 적극적으로 기사화했다. 한편 취재를 받은 한국인들도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엘리트층이 많았기 때문에 식민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취재자와 취재대상자 사이의 대화에는 일제강점기와의 연속성을 볼 수 있다

그러는 한편 당시 일본에서 큰 이슈였던 대일 강화조약이나 일본 재무장문제 등에 대해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지식인층의 의견을 적극 기사화하고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했다. 그들의 의견은 한국이 한국전쟁에서 큰 피해를 받은 만큼 일본도 재무장하고 공산주의의 침투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친일적·반공적 경향이 강하게 나

타났다. 그런 특징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일본 중심의 새로운 수직적-차별적 냉전질서 구축과 지체된 한일 양국의 탈식민화가 낳은, 즉 새로운 한미일 구조가 낳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둘째, 기사에는 미군에 의한 검열의 영향과 그에 따른 반공의식이 들어난다. 기자들은 서울의 전쟁 피해를 자세히 보도했는데 그들이 직접 관찰한 지역은 중구와 용산구 등 미군의 공중폭격 피해가 가장 심했던 곳이었다. 그들은 제2차대전시 도쿄 대공습으로 미 공군 전략폭격의 효과를 스스로 체험한 데다 한국전쟁 초기부터 미군이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로 일본의 기지에서 B29 폭격기가 한반도를 향해 출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상을 초월한 피해”를 가져온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은 미군의 언론통제의 직접적 결과물이기도 하고 패전국민으로부터 UN군 ‘장교’로의 갑작스러운 신분상승이 낳은 서방세계에 대한 친근성의 반영이기도 했다. 그들은 UN군 종군기자로 영관급 대우를 받고 하루아침에 연합군 장교와 동등한 지위로 올랐다. 한 기자가 특파원 숙소에는 “UN 정신에 걸맞은 우정과 우애가 존재한다”고 표현했듯이 일본이 독립하고 UN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국제무대에 복귀한 일본’의 이미지를 독자에게 심어주었다.

셋째,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 나름대로 독자적인 보도를 제공했다. 특히 1952년 4월 일본이 독립하고 국내에서 완전히 검열 제도가 없어진 후 아사히 신문은 일본의 전쟁 협력 실태를 밝혀내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비판한 기사들을 종종 게재했다. 또 휴전협정 체결 직전에는 격화된 한국의 휴전반대 시위의 이면에 평화스러운 일상생활이나 시민의 염전기분이 흐르고 있음을 다각적으로 소개했다. 이것은 휴전 결사반대 일색이었던 한국 신문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인 기자의 보도는 미군의 통제 아래 있으면서도 일본인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고 한국전쟁과 일본의 관계를 이해시키는 데 일정한 의의가 있었다. 그 시기 이승만 정부의 통제로 인해 언론이 막힌 상태에 있던 한국인에게도 일본 신문은 귀중한 정보원이 되었다. 한편 미군의 언론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종군기자들의 회상에서 보듯이 그들에게 ‘자유의 나라, 미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서방세계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그들의 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대일관(對日觀)을 보면 역사인식 문제를 외면한 채 반공과 경제 원조를 목적으로 북한을 배제한 수교라는 한일협정 체제의 원형을 이미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종군기자의 활동은 현재 일본 언론의 한국관, 미국관을 조성한 원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 종군기자들의 활동은 한일 양국에서 과거의 기록에 파묻혀 거의 잊혀져 있지만 그들이 남긴 보도 내용과 경험은 앞으로 건전하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과제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문헌】

1.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게재된 중군기자들의 기사

《아사히신문》 92건

- 51.7.12 <戦火の跡・京城を見る/商店街七割は廢虚/無殘・炭とカワラの山>
- 51.7.13 <緊張みなぎる前進基地/報道陣火花の活躍/“新聞列車”を宿舍に>
- 51.7.21 <さまよう韓國の人々/限りなき戦争憎惡/しかも38度線停戦に反對>
- 51.8.11 <韓國民の對日感情/講和へ強い關心/“好感”に明確な一線>
- 51.9.13 <韓國人の對日感情/對日講和除外に不滿/一般的には敵對感情薄らぐ>
- 51.10.25 <あえて休戦拒まず/再開に韓國人の意向>
- 51.10.28 <韓國知識層の見た日本/“繰り返すバカ騒ぎ”/激動する民心は共通>
- 51.10.30 <休戦會談苦勞ばなし/顧問に心理學者/あてにならぬ「明白了」>
- 51.11.1 <“冬將軍”は國連軍の味方/共產兵士の士氣とみに低下>
- 51.11.14 <パラシュート降下/米軍、朝鮮上空で演習>
- 51.11.17 <休戦會談こぼれ話/虚々實々の記者合戦/吳越同舟/亂れ飛ぶ七カ國語>
- 51.11.24 <現地、樂觀論を警戒/「休戦監視」の範圍注視>
- 51.11.28 <韓國人の見る境界問題/思わず歌う“三八度線”/古都開城の喪失に悲嘆>
- 51.11.29 <冬將軍、再び朝鮮戦線に/つけ物ねらう共產軍/高い燃料が頭痛のタネ>
- 51.12.7 <板門店の“チトー記者”/達者な理論家/共產側を煙に巻く>
- 52.1.4 <世界の危機線/アジアの現地を探る/朝鮮/宿命の南北境界線/休戦か、統一か もだえる民の聲>
- 52.1.7 <韓國でつく日本品の評判特需ものは“まあ一応”/ウィスキー無條件でOK>
- 52.2.28 <成立へ望み 休戦會談/交渉は「捕虜」に集約/双方ともに妥結の希い>
- 52.3.19 <春近き京城/街に背廣姿も/ふえる人口、騰る物価>
- 52.5.9 <筋金入り/巨濟島の捕虜>
- 52.5.14 <巨濟島捕虜收容所を見る/壁には激越なスローガン/記者団にツバする若い捕虜>
- 52.7.5 <押し切った李大統領/韓國憲法ついに改正/對米交渉への先制/>
- 52.7.10 <手詰りの休戦會談/今日で二年目/強氣になった國連側/兵隊さん楽しみは除隊の点数>
- 52.8.3 <五日に韓國大統領選挙/李承晩の再選は確實/他三候補 李派への抵抗運動>
- 52.8.9 <日韓會談 態度不変か/李大統領 再選後の諸政策>
- 52.8.26 <最近の釜山の表情/散調まで小屋の群立/百万人が戦亂にうごめく>
- 52.8.30 <板門店のこのごろ/宣伝工作の一つ?/日本人記者に笑顔みせる赤い記者>
- 52.9.11 <親子三代、韓國暮らし/休戦會談の人気米大尉(언더우드)>
- 52.9.15 <“この選挙”韓國はどうみる/再軍備へ強い關心/連立内閣の予測も>
- 52.10.13 <韓國の對日感情惡化/漁船捕獲や記者追放>
- 52.10.18 <コガラシすさぶ板門店/一点眞空の中立地帯/會談場はひっそり閑>
- 52.10.25 <“鐵の三角地帯”血の戦い/“白馬”変じて“赤馬山”/倍加した共產軍砲兵力>
- 52.10.25 <人気取り戻す李大統領/外交手腕に信賴/清い経歴の民族的偶像>

52.10.26 <特命大使派遣を期待/韓国、吉田新内閣に注目>

52.11.7 <アイクの出現/朝鮮動亂はどうなる/休戦成立には悲觀的>

52.11.12 <アイクは何をしに來る？/米兵たちの期待と心配/韓國軍部隊を激勵に>

52.11.16 <朝鮮戦線に日本兵器/共産側に火を吹く/韓國人はいう ふところ手の日本人>

52.11.25 <アイクを迎える京城の表情/複雑な“期待と心配”/田舎疎開また始まる>

52.11.26 <アイクの直面する現實/「公約」實現は無理？/途遠い韓國軍隊の自立>

52.12.6 <ア元帥、訪鮮を終る/中國本土の攻撃は戦亂解決策に非ず>

52.12.6 <アイク煙幕旅行に成功/世界を完全にだます>

52.12.6 <ア元帥、訪鮮の成果/公約以上の重要意義/強氣示した現地軍>

52.12.6 <笑わなかった朝鮮戦線のアイク/辛い立場の表明？/特効薬は見当たらなかった>

52.12.14 <ア元帥が与えた三つのOK/經濟援助や北進/韓國側に明るい表情>

52.12.19 <行きづまりの日韓交渉/双方に積極性乏し/李大統領對日反感あおる>

52.12.22 <暮れも正月もない京城の表情/電燈配給は二日おき/男も女も古軍服着て/除夜の坎代りに砲聲>

53.1.4 <“兩虎模索”の年か 朝鮮動亂/“万能薬”予想されず/冬將軍下に永久陣地化>

53.1.10 <韓國の對日感情好轉/三月に會談再開を希望>

53.1.16 <朝鮮戦線へ飛ぶ日本人の血/既に七千人分送る/羽黒山や東條姉妹など>

53.1.20 <日韓關係/李大統領の所信/本社記者の質問書に答う/共通の敵・共産主義/將來の友好樹立に希望>

53.1.25 <朝鮮基地に日本人勞務者/艦艇の修理に従事/年に二億の外貨稼ぐ>

53.2.15 <朝鮮戦線から見た米國のハラ/韓國人に代理戦争/對ソ世界戰略整備まで>

53.2.4 <朝鮮の大攻勢は無理/基本線は韓國軍の増強>

53.2.24 <京城奪回から二年/寫眞ルポ>

53.3.1 <京城に残る日本女性/街の人達は親切/歸り度いが、辛い別れ>

53.3.30 <朝鮮戦線にも春は來たが/共産軍の出撃つづく/國連軍 全戦線で節約運動>

53.3.31 <日本の選挙 朝鮮戦線での反響>

53.4.1 <半年ぶりの板門店/扇風機もそのまま/「平和攻勢」に驚いた國連側>

53.4.5 <休戦會談の前途多難/なお微妙な食い違い？/“まず傷病捕虜”の國連軍>

53.4.6 <傷病捕虜交換 連絡將校會談始まる/新聞列車大にぎわい>

53.4.11 <傷病捕虜の交換/協定の調印成る/本會談再會も樂觀/残るは中立國選定>

53.4.14 <共産軍記者の言葉/“六月には休戦實現”/國連軍筋は本會議の長期化予測>

53.4.18 <休戦氣構えと韓國の反応/歸還捕虜を半年再教育/休戦條項の批准に反對>

53.4.19 <十名以上の日本人捕虜/板門店歸着の英記者談>

53.4.26 <“來月中には休戦實現”/國連側に高まる樂觀論>

53.4.29 <駆け引きの演出役？/板門店に初見參のソ連記者>

53.5.8 <板門店に日本人の碑/小さな丘にボツンと/三年の戦火に残り休戦會談見守る>

53.5.23 <ふくれる京城の人口/休戦會談と物価安にひかれ>

53.5.24 <注目の休戦會談あす再開/國連側の譲歩予想/報道陣の觀測/“即時釋放”撤回せん>

53.5.25 <双方の「譲歩」に期待/きょう休戦會談再開>

53.6.1 <會談延期要求を好感/現地 共産側の譲歩期待/韓國への保障要求/李返書>

53.6.4 <休戦會談 共産側、見解説明か/國連方式の否定/休戦後の保障 米、韓國に同意か>

53.6.5 〈協定成立へ近づく/共産側提案 國連側も受諾？/現地觀測〉
 53.6.8 〈きょう成立聲明か/休戰協定の調整終る/議長はインドに/送還拒む捕虜管理委〉
 53.6.8 〈捕虜送還協定成る/憤激の聲・期待の感情/休戰迎える韓國の表情〉
 53.6.11 〈“次の手”に戸惑う/苦境に立つ李大統領〉
 53.6.15 〈運命的な韓國の悲劇/天に訴う号泣デモ/休戰反對 痛しかゆしの李政權〉
 53.6.16 〈朝鮮の休戰と今後/對立逆に激化せん/南北統一の見込み立たず/苦境に立つ米國/中國承認と國連加入問題〉
 53.6.22 〈逃亡捕虜はどうなるか/韓國は愛國者と歡迎/既成事實化し、復歸困難〉
 53.6.25 〈朝鮮戰亂きょう三周年/「無」から出發する復興/韓國人の損害 軍25万、民間92万〉
 53.6.26 〈李大統領と會見/きょうロバートソン米國務次官補/米から妥協の手？〉
 53.6.29 〈休戰會談近く再開要求？/防衛條約に集中 韓米交渉ほぼ終わる〉
 53.7.3 〈反逆者から英雄？まで…/李承晩大統領の横顔/貫く強固な支配力〉
 53.7.14 〈板門店記者往來/脂粉なき中共婦人記者/笑いをふりまく米カメラマン〉
 53.7.17 〈板門店はユウウツ/たった六ヵ月の平和？/朝鮮休戰成立しても〉
 53.7.18 〈休戰色にそまる京城〉
 53.7.26 〈朝鮮の平和はいつまで續くか/六ヵ月後には危機/問題はらむ中立監視委〉
 53.7.26 〈“休戰”立役者の横顔/性格まったく對照的 ハリソンと南日兩代表〉
 53.7.26 〈不安を包む静けさ/韓國の表情 小國の無力感〉
 53.7.27 〈休戰協定調印さる/兩代表、黙々と署名/立ち去る前 一度だけ顔見合わす〉
 53.7.27 〈“ビッグ・デー”に大童/調印に備える報道陣〉
 53.7.28 〈平壤ではデモ行進/共産軍も飲めや歌えや〉

《마이니치신문》 82건

51.7.12 〈今村特派員/朝鮮前線から第一報/痛々しい戰禍の跡 廢屋の中から煙立つ〉
 51.7.13 〈“廢虛京城”を彩る報道戰/集る記者數百/四六時中宿舎は繁忙〉
 51.7.14 〈残る日本字の看板/破壊し儘された京城京町〉
 51.7.16 〈漁業はや戰前の水準へ/仁川・廢虛に復興の兆〉
 51.7.24 〈三十八度線に立って/砲撃で地形も一変/墓石に刻む“南北統一”〉
 51.7.27 〈停戰後の韓國/《復興》と《防共》に日本の援助を熱望〉
 51.11.14 〈降下、忽ち戰鬪態勢/大邱附近で 米奇襲空挺隊の大演習〉
 51.12.13 〈休戰會談/韓國人の心境複雑/生活苦に休息を切望 一時的平和には不安〉
 51.12.23 〈落ち着き取り戻した韓國の近情/強まる日本への關心/經濟的な提携を希望〉
 52.1.1 〈休戰會談/共産側兵員交代で掛引/未解決の休戰監視、捕虜問題〉
 52.1.4 〈徴集の青年が行進/元旦の京城に“空襲警報”〉
 52.1.13 〈解決の道通し 朝鮮動亂/協定後の“優位”で掛引/政治休戰は更に困難〉
 52.3.16 〈停滯する休戰會談/《武裝平和》で時かせぐ/共産側軍備、急激に増強〉
 52.4.24 〈現地の樂觀論薄らぐ/共産側『ソ連指名』にも強硬〉
 52.4.29 〈双方妥結の道を残す/休戰會談 主導力は共産側に〉
 52.5.4 〈机の真ん中に小旗/板門店會談場を初訪問〉
 52.5.9 〈ドッド捕虜收容所長監禁/休戰會談に惡影響/共産側 宣伝に利用せん〉

52.5.13 <巨濟島收容所を見る/反抗的な共産捕虜/旗を掲げ要求固持/困難になる捕虜扱い>

52.8.11 <冷静な京城市民/“警告爆撃”で局面展開か/現地で感ずる休戦會談>

52.9.18 <米ジェット機隊を訪れる/戦略爆撃の花形/超低空で攻撃、凄い命中率>

52.9.20 <中ソ會談・韓國の反響/“共産側、戦略変えず”/動亂の長期化を覺悟>

52.9.22 <總選舉に韓國民の關心/再軍備の動向を注視/“友好關係早める機運を”>

52.10.4 <“密入國援助”とさわがる/張前韓國總理辭任の真相/“船員”で渡った元京城市長 古市氏>

52.10.12 <朝鮮戰亂の様相/《無人戰》の段階へ/自由、共産陣營の實驗台>

52.10.22 <京城に砲聲とどろく/市民は鴨綠江凍結を心配>

52.10.24 <“冬將軍”迎える朝鮮戰線/激しい陣地爭奪/戰略高地の制壓狙う>

52.11.14 <新事態に期待と不安の韓國人/アイク訪鮮後の共産軍攻撃恐る/預言書にすぎる>

52.11.16 <休戦へ複雑な韓國民の心理/平和と統一の矛盾/強腰の政府、終始一貫妥協を排す/アイク訪鮮に二様の期待>

52.11.20 <朝鮮戰線に硫黃島戰の再現/『鐵の三角地帯』をゆく>

52.11.22 <アイクを待つ朝鮮の表情/ひしめく報道陣/接待準備に忙しい京城>

52.11.23 <『救世主』アイクに期待する韓國/“何かしら”への望み/國を擧げての歡迎騒ぎ>

52.11.28 <アイク、感謝祭にも姿見せず/歡迎旗に無情の雨/空仰ぎ落胆の京城市民>

52.11.30 <韓國人、アイクに三様の期待/統一の悲劇変わらず/休戦會談の解決に反對>

52.12.2 <韓國はアイクに何を望む?/“南北統一”の強政策/國連軍撤退に斷固反對>

52.12.5 <アイク、朝鮮を訪問/李大統領 クラーク大將と會談/三日滞在、昨夜歸途へ>

52.12.6 <完全な隱密行動/出迎いのクラーク大將もまく>

52.12.6 <ほとんど前戰線を視察/輕飛行機とジープでかけ回る/肩をたたかれ感激する兵士>

52.12.6 <アイク放鮮の成果/韓國人に明るい希望/効果は來年の春ごろか>

52.12.8 <軍事的壓力を加えん/アイク放鮮 大きな心理的效果>

52.12.13 <“開店休業”の板門店/今では苦情交換所/うき晴らしにピンポンやヨーヨー>

53.1.12 <對日友好・一步前進した韓國/反共鬭爭協力を目標/日・韓・國府の結束に期待>

53.1.19 <雑踏の街釜山/まるで終戰直後の上野/スジづめの難民小屋、さ迷う浮浪兒/“國際市場”には日本品の山>

53.1.25 <戰局の轉換を望む韓國人/アイク政權の打開まつ/長い行き詰まりで士氣にも影響>

53.2.7 <台湾中立解除と朝鮮戰線/國連軍、新攻勢展開か/行詰り打開に後方上陸と空挺作戰>

53.2.15 <春を待つ京城市民/戰火にめげぬ生活力>

53.2.21 <凍結の朝鮮戰線を往く/四通八達の地下壕/呼べば答える共産陣地>

53.3.9 <反共戰の渦中から/韓國將兵は望む/“日本よ強くあれ”/再軍備に意氣込む重光總裁に人氣集中>

53.3.13 <マレンコフ登場と朝鮮動亂/融和的な態度とるか>

53.3.24 <朝鮮だより/動亂の中にも芸道への熱意>

53.3.28 <平和宣伝の側面攻撃/中西部戰線の戰鬭激化/國連軍觀測 春季攻勢を意味せず>

53.4.7 <休戦會談再開/韓國人の表情/成立せば“統一”望めず/平和近しに悲喜こもごも>

53.4.8 <韓國の通貨改革その後/一時は生産に大打撃/変りばえせず依然生活難は續く>

53.4.10 <戦う北鮮の實相/板門店で共産側記者と會談/學生は軍事教練/戰災東京と同様インフレに悩む>

53.4.11 〈休戦交渉、さらに一步進む/《自由送還》で譲歩/ただし歸國拒否あり得ず/共産側、ク書簡に回答〉

53.4.13 〈新しい服やクツは一人も見当たらない/テント教室の韓國小學生〉

53.4.17 〈朝鮮休戦/韓國人はこう見る/單に“行詰まりの平和”/日本との友好、經濟提携は必然/南北統一の悲願遠のく〉

53.4.17 〈休戦近し/復興急ぐ京城市民〉

53.4.18 〈傷病捕虜交換を待つ板門店/兩軍、設營準備に大童/胸打つ戦友への思いやり/機械力發揮する國連側〉

53.4.19 〈傷病捕虜・あす第一回交換/世界の耳目を集めて/五十台のタイプ競う百余名の記者〉

53.4.27 〈共産側から新提案/休戦會談第一日/期間六カ月に/送還拒否捕虜の中立國管理/最終處理は政治會議で〉

53.4.27 〈共産側“殘虐行爲”の實相/國連軍交換捕虜にきく/敗走の重荷をかぶり/酷寒に死の強行軍/飢えと病で次々倒れる〉（署名なし）

53.5.7 〈朝鮮動亂の“銃後”/京城の近ごろ/市民に背廣姿を獎勵/女學生は血書も平氣/國策劇に《侵略者伊藤博文》〉

53.5.27 〈韓國の讀書界/國立圖書館をたずねて〉

53.6.3 〈統一なき休戦・嘆きの韓國民/經濟的貧困に不安/共産主義の溫床そのもの〉

53.6.5 〈韓國 統一なき休戦憂う/“貧困と”共産侵略に不安〉

53.6.8 〈朝鮮休戦、遂に成立/韓國も結局同意か/冷靜な韓國市民〉

53.6.12 〈韓國民の悲憤をよそに休戦へ/齒車は回る/理屈では制しきれぬ“北進・北進”の興奮/彼らは叫ぶ“三年の勞苦の酬いが—”〉

53.6.13 〈休戦で日韓關係好轉せん/復興特需、大半日本に/李ライン問題解決に拍車〉

53.6.14 〈京城覆う休戦反對の叫び/統一こそ民族の悲劇〉

53.6.21 〈東（韓國）に西（東ベルリン）に〉

53.6.24 〈クラーク大將に休戦妥結權/兩者會談 李大統領から再確約に努力/韓國軍指揮權も強調〉

53.6.25 〈きょう朝鮮動亂三周年/休戦へ期待高まる/韓國 ロバートソン次官補の來訪好感〉

53.6.25 〈きょう韓國全土でデモ/だが街には早や平和の色〉

53.7.13 〈雨季の韓國南部を往く/貧窮底をつく農村/行政機關京城復歸に多忙〉

53.7.20 〈ホッとした韓國人/共産側の調印同意/問題は若い人の説得〉

53.7.20 〈調印の日近き板門店の表情〉

53.7.24 〈韓國、政治會議に悲觀的/双方で正統を主張/統一の可能性薄し〉

53.7.27 〈休戦會談の立役者/實直で忍耐強いハリソン將軍/インギン尊大な南日將軍〉

53.7.27 〈休戦調印・けさ終る/ハリソン・南日兩首席代表/今夜十時・三年ぶりに全線停戦/笑いなき晴れの式場/韓國代表の姿見えず〉

53.7.28 〈おおビッグ・デー/朝鮮休戦/生きてきょうの日を/喜びあう前線兵士/韓國兵も“まあネ”と微笑む〉

53.7.28 〈非武裝地帯の設定進む/軍事境界線・國連軍から發表/戰略要地大半含む/金化の喪失、國連側不利〉

53.7.28 〈砲聲止んだその夜の朝鮮/赤肌の戰場照らす月/三韓國兵 停戦數分前に散る〉

2. 기타 신문 잡지 자료

《新聞協會報》《동아일보》《조선일보》

藤田一雄, 内藤男, 染川洋二郎, 千田圖南男, 木原健男, 1951 〈座談會 朝鮮戰線に従軍して〉《改造》 1951년 9월호 改造社

染川洋二郎, 1951 〈廢墟の朝鮮をゆく〉《地上》 5권 10호 家の光協會

에고시 도시오(江越壽雄) 인터뷰, 2014년 11월 실시

〈EUSAK Information for Press Correspondents〉 江越壽雄 씨 제공, 日本新聞博物館 소장 자료.

〈Code for Japanese Press〉 University of Maryland, Gordon W. Prange Collection

3. 사서류, 단체 간행물

朝日新聞社百年史編修委員會編, 1995, 《朝日新聞社史 昭和戦後編》 朝日新聞社

朝日新聞社百年史編修委員會編, 1995 《朝日新聞社史 資料編》 朝日新聞社

朝日新聞社.東京本社.出版局, 1969 《朝日新聞出版局史》 朝日新聞社

共同通信社社史刊行委員會編, 1996 《共同通信社50年史》 共同通信社

日本放送協會, 1972 《放送五十年史》 日本放送出版協會

日本新聞協會編, 1951 《日本新聞年鑑 昭和27年版》

1999 〈証言：日本の社會運動 讀賣爭議のその後(2)——増山太助氏に聞く〉 《大原社會問題研究所雜誌》 No.486,

1998 《体験者に聞くテーマ別戦後新聞史第2号 朝鮮戦争報道》 日本新聞協會研究所

2010 《「朝鮮戦争から60年 戦場の記録—N.Y.デイリーニューズ寫眞コレクションより」展覧會図録》 日本新聞博物館

4. 단행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커뮤니케이션연구소, 1990 《한국전쟁의 동서보도 비교》 한국언론연구원

정용욱, 2003 《해방 전후 미구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영희, 2009 《한국사회의 미디어 출현과 수용 : 1880-1980》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분과, 2010 《역사학의 시선으로 읽는 한국전쟁—사실로부터

총체적 인식으로》 휴머니스트

존 다우어, 최은석=옮김, 2009 《패배를 꺾안고》 민음사

세르주 브롱베르제, 정진국=옮김 2012 《한국전쟁통신 네 명의 프랑스 중군기자가 본 6·25전쟁》 눈빛

I.F.Stone, 1952 《The Hidden History of the Korean War》 Monthly Review Press

Steven Casey 2008 《Selling the Korean War—Propaganda, Politics, and Public Opinion 1950–1953》 Oxford University Press

Reginald Thompson, 2009 《Cry Korea》 Reportage Press

마크·게인, 井本威夫=譯, 1951 《ニッポン日記》 筑摩書房

ウィルフレッド·バーचेット, アラン·ウィ닝グトン, 片山さとし=譯, 1953 《朝鮮の米軍—巨濟島 休戰會談》 五月書房

D.W.コンデ, 1972 《朝鮮戦争史》 太平出版社

フィリップ·ナイトリー, 芳地昌三=譯, 1987 《戦争報道の内幕 隠された眞實》 時事通信社

C. A. ウィロビー, 延禎, 平塚枉緒=譯, 2011 《GHQ 知られざる諜報戦—新版 ウィロビー回顧録》 山川出版社

松本清張, 1958 《黒地の繪》 光文社

民族問題研究會, 1967 《朝鮮戦争史—現代史の再發掘》 コリア評論社

松浦總三, 1974 《増補決定版 占領下の言論弾壓》 現代ジャーナリズム出版會

山室英男=責任編集, 1985 《昭和の戦争 ジャーナリストの証言10 朝鮮戦争・ベトナム戦争》 講談社

内海愛子·梶村秀樹·鈴木啓介, 1986 《朝鮮人差別とことば》 明石書店

梶村秀樹, 1992 《梶村秀樹著作集第1巻 朝鮮史と日本人》 明石書店

和田春樹, 1995 《朝鮮戦争》 岩波書店

豊下楯彦, 1996 《安保條約の成立》 岩波書店

大沼久夫=編, 2006 《朝鮮戦争と日本》 新幹社

中正樹, 2006 《客観報道とは何か》 新泉社

新藤健一, 2006 《疑惑のアングル》 平凡社

小林聰明, 2007 《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空間》 風響社

土屋由香, 2009 《親米日本の構築—アメリカの対日情報・教育政策と日本占領》 明石書店

田中恒夫, 2011 《図説 朝鮮戦争》 河出書房新社

山本武利, 2013 《GHQの檢閲・諜報・宣伝工作》 岩波書店
 貴志俊彦, 土屋由香, 2009 《文化冷戦の時代 アメリカとアジア》 國際書院
 鄭榮桓, 2013 《朝鮮獨立への隘路--在日朝鮮人の解放五年史》 法政大學出版局
 白宗元, 2013 《檢証 朝鮮戦争—日本はこの戦争にどうかかわったか》 三一書房

5. 연구논문

이강수, 1972 〈한국전쟁의 외국특파원〉 《신동아》 1972년 6월호
 변동현·박홍수·김영기<한국전쟁 말기 휴전협정에 대한 한미 신문의 사실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4, 2012.
 김영희, 2014 〈한국전쟁 초기 전쟁 소식 전파와 대응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58권 4호 한국언론학회
 김영희, 2012 〈한국전쟁기 이승만정부의 언론정책과 언론의 대응〉 《한국언론학보》 56권 6호 한국언론학회
 김영희, 2010 〈한국전쟁기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언론학보》 54권 5호 한국언론학회
 김태우, 2008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국사학과 박사논문
 小林聰明, 2010 〈韓國通信檢閲体制の形成〉 一橋大學社會學研究科博士論文
 井川充雄, 2002 〈朝鮮戦争におけるアメリカのプロパガンダ放送とNHK〉 《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No.60
 有山輝雄, 1994 〈占領軍檢閲体制の成立—占領期メディア史研究〉 《コミュニケーション紀要》第8輯 成城大學文芸學部
 有山輝雄, 1995 〈占領初期CI&Eのメディア統制—占領期メディア史研究〉 《コミュニケーション紀要》第9輯 成城大學文芸學部
 土屋礼子, 2013 〈對日心理戰としての朝鮮戦争報道〉 《Intelligence》 2013년 3월호, vol.12, 早稻田大學20世紀メディア研究所インテリジェンス編集委員會
 李虎榮, 1998 〈日本のメディアにおける朝鮮戦争の報道に関する研究〉 上智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新聞學博士論文
 南基正, 2000 〈朝鮮戦争と日本—〈基地國家〉における戦争と平和〉 東京大學大學院総合文化研究科博士論文
 赤木完爾, 2013 〈朝鮮戦争—日本への衝撃と余波—〉 《朝鮮戦争と日本》 防衛省防衛研究所
 鈴木 英隆, 2013 〈朝鮮海域に出撃した日本特別掃海隊—その光と影—〉 《朝鮮戦争

と日本》 防衛省防衛研究所

田中 明, 2013 〈朝鮮戦争における後方支援に関する一考察—仁川上陸作戦に焦点を当てて—〉 《朝鮮戦争と日本》 防衛省防衛研究所

小林知子, 1992 〈GHQによる在日朝鮮人刊行雑誌の検閲〉 《在日朝鮮人史研究》
第22号 在日朝鮮人運動史研究會

小林知子, 1996 〈戦後における在日朝鮮人と「祖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4号